

정책연구
2023-22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김세움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 및 경제적 지위	5
제1절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특징 및 인접 세대와의 비교	5
1. 2010년 이후 세대 간 고용지표 추이 비교	6
2. 1960년대 및 1970년대 출생자 간 동일 연령대 고용지표 비교	9
3.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 간 동일 연령대 고용지표 비교	16
4.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고용지표 비교 결과 요약	22
제2절 X세대의 경제적 지위 및 인접 세대와의 비교	23
1.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비교	24
2.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비교	27
3.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경제적 지위 비교 결과 요약	30
제3절 소 결	31
제3장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	33
제1절 선행연구	33
1. Kahn(2010)	33

2. 한요셉(2017)	34
3. Von Wachter(2020)	34
4. Choi, Choi and Son(2020)	36
5. Bae and Kim(2023)	36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론	37
1. 분석 자료	37
2. 분석 모형	38
제3절 분석 결과	41
1. 기초통계	41
2. 졸업 연도 실업률과 향후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44
제4절 소 결	51

제4장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향후 개인 의식에

미친 영향	53
제1절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의식의 궤적 비교	54
1. 삶에 대한 만족도의 추이: 세대 간 비교	54
2. 행복 수준의 추이: 세대 간 비교	57
3.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의 추이: 세대 간 비교	58
4. 정치적 성향의 추이: 세대 간 비교	60
제2절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의식에 미친 영향:	
X세대 내 분석	70
1.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X세대 내 분석	73
2.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행복 수준: X세대 내 분석 ..	75
3.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X세대 내 분석	77
4.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정치적 성향:	
X세대 내 분석	78
제3절 소 결	82

제5장 결 론	84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84
제2절 정책 시사점	87
참고문헌	92

표 목 차

〈표 2-1〉 연도 및 연령대별 주류 세대 정의	10
〈표 2-2〉 비교 연도 및 각 세대별 연령대	28
〈표 3-1〉 기초통계	42
〈표 3-2〉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OLS 분석	45
〈표 3-3〉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2SLS 분석	48
〈표 3-4〉 대학 졸업 연도 실업률 1%p 상승 시 노동시장 성과 하락 정도	49
〈표 4-1〉 기초통계	72
〈표 4-2〉 졸업 연도 실업률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2SLS 분석	74
〈표 4-3〉 졸업 연도 실업률과 행복 수준 간 관계: 2SLS 분석	76
〈표 4-4〉 졸업 연도 실업률과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간 관계: 2SLS 분석	77
〈표 4-5〉 졸업 연도 실업률과 개인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 가능 인식 간 관계: 2SLS 분석	79
〈표 4-6〉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조합 기여도 인식 간 관계: 2SLS 분석	81

그림목차

[그림 2- 1] 세대 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2010~2022년)	6
[그림 2- 2] 세대 간 실업률 추이 비교(2010~2022년)	7
[그림 2- 3] 세대 간 고용률 추이 비교(2010~2022년)	8
[그림 2- 4]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11
[그림 2- 5] 20대 당시 실업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	12
[그림 2- 6] 20대 당시 고용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	12
[그림 2- 7] 3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13
[그림 2- 8] 30대 당시 실업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	14
[그림 2- 9] 30대 당시 고용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	15
[그림 2-10]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17
[그림 2-11] 20대 당시 실업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	18
[그림 2-12] 20대 당시 고용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	18
[그림 2-13] 3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19
[그림 2-14] 30대 당시 실업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	20
[그림 2-15] 30대 당시 고용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	21
[그림 2-16]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순자산 추이 비교(2009~2021년) ...	24
[그림 2-17]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 추이 비교 (2009~2021년)	25
[그림 2-18]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 추이 비교 (2011~2021년)	27
[그림 2-19]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순자산 비율 비교	29

[그림 2-20]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 비율 비교	29
[그림 2-21]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 비율 비교 ..	30
[그림 3- 1] 1990~2011년 연도별 전국 실업률	40
[그림 4- 1]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이 비교(1~5점 척도, 1998~2022년)	55
[그림 4- 2]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이 비교(0~10점 척도, 2015년 및 2017~2022년)	56
[그림 4- 3]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행복 수준 추이 비교 (0~10점 척도, 2015년 및 2017~2022년)	57
[그림 4- 4]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추이 비교(1~6점 척도, 2005~2022년)	59
[그림 4- 5]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비교(1~4점 척도, 2005~2022년)	62
[그림 4- 6]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의 근로자 보호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63
[그림 4- 7]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64
[그림 4- 8]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 임금 인상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65
[그림 4- 9]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이념적 성향 비교(1~5점 척도, 2019년)	67
[그림 4-10]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비교 (0~10점 척도, 2019년)	68

[그림 4-11]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성장-분배 중요성 인식 비교(0~10점 척도, 2019년)	69
[그림 4-12]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공동체-개인 이익 중요성 인식 비교(0~10점 척도, 2019년)	70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일반사업인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의 2년 차에 수행된 연구과제이다. 현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과거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된 연구 대상인 1970년대 출생 X세대와 그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 및 경제적 지위를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출생 세대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지표나 경제적 지위가 인접 세대보다 열악하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시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 고용지표의 경우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1970년대생이 가장 양호하다. 더불어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등 항목에서 세대 간 경제적 지위를 2010년 이후와 비교하더라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타 세대 대비 더 낮다고 볼 근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대 혹은 30대 동일 연령대일 때 각 세대의 고용지표를 비교하면,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대체로 열악하였다. 20대일 때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30대일 때를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유사하다. 한편 1980년대생과 비교하면 20대일 때는 1970년대생이, 30대일 때는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가 대체로 더 우월하였다. 이는 1980년대생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예전보다 늦어진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세대 간 차이

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970년대 출생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졸업 당시 실업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X세대라는 단일 세대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 분석 표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세대 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970년대 출생자의 과거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관련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 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에게 초점을 맞춰 수행한 분석이 현 시점 청년 일자리 정책의 우선 순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내성성 편의를 제거한 도구변수 추정 결과,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 수록 향후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지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OLS 추정 결과와 도구변수 추정 결과 간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X세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졸업 연도 선택의 내생성에 따른 편의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한 경우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1970년대 출생 세대와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 간 의식의 추이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대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인접 세대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개인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

및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등에서 1970년대생이 인접 세대에 비해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1970년대 출생 고등교육 이수자 표본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향후 의식의 궤적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은 향후 개인의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만족스런 삶, 행복,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도는,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과는 달리 기대 수준을 낮추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은 향후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기여도 인식에 통계적으로도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노조 가입에 따른 수혜를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 원인 중 일부가 개인의 의식 변화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즉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 노력 유인에 역시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장기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갖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과거 X세대의 경험을 분석하여 현재 청년세대를 위

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말미에 X세대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시사점을 일부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재의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 순서는 정책의 중요도가 아닌, 정책이 집행되는 연령 순서로 배열하였다.

1. 초등 및 중등, 더 나아가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규교육 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있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인의 의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불리한 외부 환경에 직면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존감(self-esteem)이 흔들리고 상황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유인이 감소하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은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미래세대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최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태도(attitude)를 갖추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정규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미래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 진폭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이 필수적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위기의 경우, 총공급(aggregate supply) 측의 교란 요인 발생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바 있다. 이 경우 총수요(aggregate demand) 측의 문제로 인해 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함께 둔화할 때보다 거시경제정책상의 대응이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물가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통

화정책 집행이 불가피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꼭 필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청년세대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출을 급격히 줄일 때, 향후 청년세대가 나이가 들어 중장년 세대에 도달할 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래 세수 확대와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3. 청년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정부에서 적극 시행하였던 기업 대상 청년 채용 보조금 지급 중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재학생들에 대해 조기에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업 현장에서의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하며 직업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정책의 기초를 변경한 바 있다.

이처럼 졸업 후 구직 실패 등 문제가 발생한 사후가 아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및 숙련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상시 혹은 위기 상황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당연히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영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조기 투자를 적극 시행하는 것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소한 경제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지난 정부에서 적극 활용하였던 청년고용 시 장려금 지급 정책을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을 기업이 아닌 청년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용주의적(pragmatic)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의 중주국으로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조차, 팬데믹 시기에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로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예산 규모 확대에 의해 재정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의 문제점은 과거 사례를 반추하여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갖는 중요성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기여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기존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장려금 사업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각 영역별 정책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나, 핵심 연구대상으로서 X세대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출생 X세대는 그들보다 이전 세대가 1960년대 정부주도 고도성장기 이후 오랜 기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구조적 병폐의 축적, 그리고 위기 상황을 상정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미비로 인한 피해를 노동시장 진입기에 고스란히 떠안은 이들을 다수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노동시장 성과 및 개인 의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에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긴 한다. 다만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낮춰 적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시점에서 X세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로서 중장년층으로 분류된다. 그중 졸업 당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오랜 기간 그로 인한 후과를 겪어 온 이들의 경우, 청년기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중장년 연령에 도달해서 뒤늦게 받는 게 불가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에 대한 맞

층형 정책 설계 및 적절한 집행을 통해, 이들이 고령자 연령대에 도달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윗세대나 아랫세대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늘 믿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X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는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짐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제 1 장 서 론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기에 외부 요인에 의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년기에 겪은 구직의 어려움이 향후 이들의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청년 일자리 문제 발생 초기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절한 분석 대상 표본이 바로 X세대로 지칭되는 1970년대 출생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20대 당시인 1990년대 후반 외생적 요인으로 발생한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례 없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해로서, 1970년대생 중 다수는 노동시장 진입기 연령대에 다른 세대와 차별화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¹⁾

다수 선행연구에서 이미 그 실체가 입증된 노동시장에서의 증장기적 영향에 더해,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일수록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즉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외생적 요인에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구직기간 1주 기준 전국 실업률은 1998년에 7.0%, 1999년에는 6.3%에 달하였다.

의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 대비 심리적 위축 등을 경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는 일반사업인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의 2년 차에 사업 내 과제로 추진되는 연구이다. 물론 분석 대상이 되는 세대 자체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문제 발생 초기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이라는 전제하에 정책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립 및 시행해 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청년고용 관련 조기 정책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과거 X세대가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었던 어려움의 중장기적 영향을 노동시장 성과와 의식 형성에 대한 파급효과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로부터 조기 정책개입의 의미를 면밀히 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년고용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의 의의를 단지 단기적인 청년고용지표 향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 청년세대가 중장년 연령대에 이를 때까지 오랜 기간 노동시장 성과 개선 및 더 나아가 의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1970년대에 출생한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지표 및 경제적 지위를 인접 세대인 196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와 비교해 보고, 두드러지는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X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등 고용지표, 그리고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등 측면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인접 세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차이점 및 그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이처럼 고용지표를 먼저 비교하고 그 후 자산, 소득, 지출의 순서로 비교하는 것은, 취업자로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자산 형성의 기반이 되어 이로부터 재산소득이 발생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으로부터 처분가능소득이 산정되고 그중에서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지출은 경제학에서 개인의 평생 효용 극대화(lifetime utility maximization)가 달성되기 위한 핵심 변수이다.

이철승(2019)은 86세대가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헤게모니를 쥐게 된 여러 요인을 언급하면서 그중 하나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86세대의 바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노동시장에서 그 직격탄을 맞은 반면, 86세대는 상대적으로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면서 향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대상인 X세대가 86세대 및 더 나아가 이후 인접 세대로서 1980년대 출생자 대비 상대적으로 어떠한 여건에 처해왔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X세대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었던 어려움의 차이가 향후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처럼 X세대라는 단일 세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분석 대상 표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세대 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의 차이가 향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졸업 연도 선택의 내생성에 따른 편의(bias)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한 추정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먼저 X세대와 그 인접 세대 간 의식 추이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X세대의 의식이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X세대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었던 어려움의 차이가 향후 각 개인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X세대 구성원의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의 차이가 향후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

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에 어떤 차이를 초래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 상황이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어떤 차이를 야기하였는지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청년세대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갖는 의의를 논의하고 정책 시사점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도출하여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X세대와 관련한 정책 함의 역시 짧게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장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 및 경제적 지위

제1절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특징 및 인접 세대와의 비교

본 절에서는 1970년대, 즉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정의하는 X세대의 2010년대 이후 고용지표를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 즉 1960년부터 1969년 사이 출생한 이들로 정의하는 86세대, 그리고 1980~1989년 사이 출생한 1980년대생과 비교하여 제시한다.²⁾ 더불어 20대 및 30대 시절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반영하는 고용지표를 동일 연령대 기준으로 인접 세대와 비교한 결과 역시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2010~2022년도 원 자료에 나타난 세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지표의 추이를 분석한다. 더불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시된 1984~2022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결과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이때 각 세대가 자신들의 20대 및 30대 시기에 보였던 고용지표를 X세대를 중심으로 86세대 및 1980년대생과 차례대로 비

2) 물론 이러한 세대 구분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분석상의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0년대생의 경우, 흔히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가 대체로 1980년부터 1994년 사이 출생자로 정의되는 점을 감안하면,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상단 및 중간을 차지하는 세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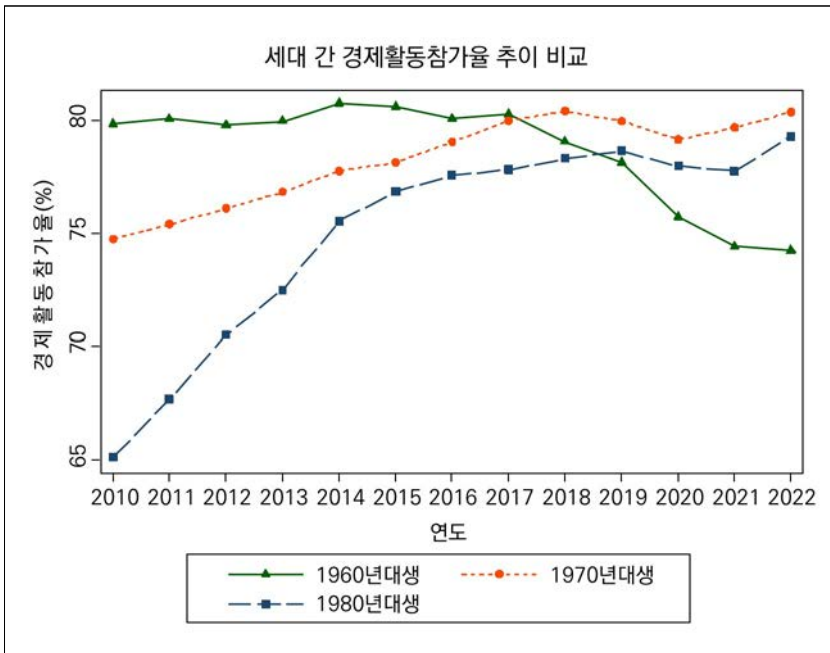
교하고자 한다.

1. 2010년 이후 세대 간 고용지표 추이 비교

먼저 X세대에 해당하는 1970년대 출생자 및 이들과 비교되는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2010년 이후 고용지표 추이를 비교하기로 한다. 물론 동일 연도에 대해 각 세대 간 평균 10년의 연령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나타난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나타낸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960년대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였으나,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8년에는 1970년대생에게, 2019년에는 1980년대생에게까지 추월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위 연령 기준 대략 50대 초반까지는 이

[그림 2-1] 세대 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비교(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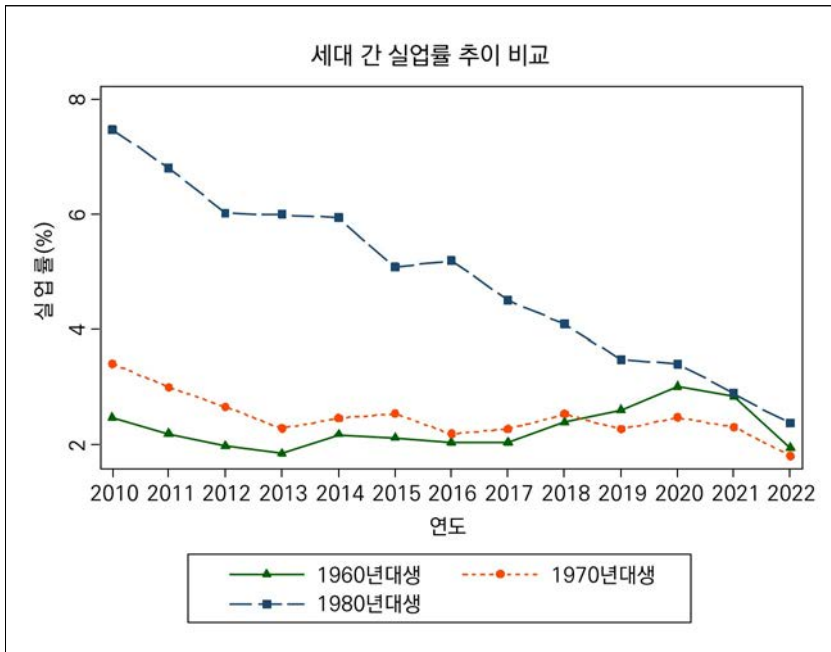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후 세대 대비 높은 경활 참가율 수준을 유지하다가,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이 가까워지면서 비경활로 전환되는 인원이 1960년대 출생자 중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X세대인 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분석 대상 시기 동안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체로 연도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세대 중위 연령 기준 대략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 정도까지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바로 아랫세대인 1980년대생의 경우 중위 연령 기준 대략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가량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경활 참가율을 나타낸 1970년대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2]는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2010년 이후 실업률 추세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1960년대 출생 세대의 실업률이 2018년까지 가장 낮다 2019년 이후 1970년대생보다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1960년대생의 중위 연령 기

[그림 2-2] 세대 간 실업률 추이 비교(201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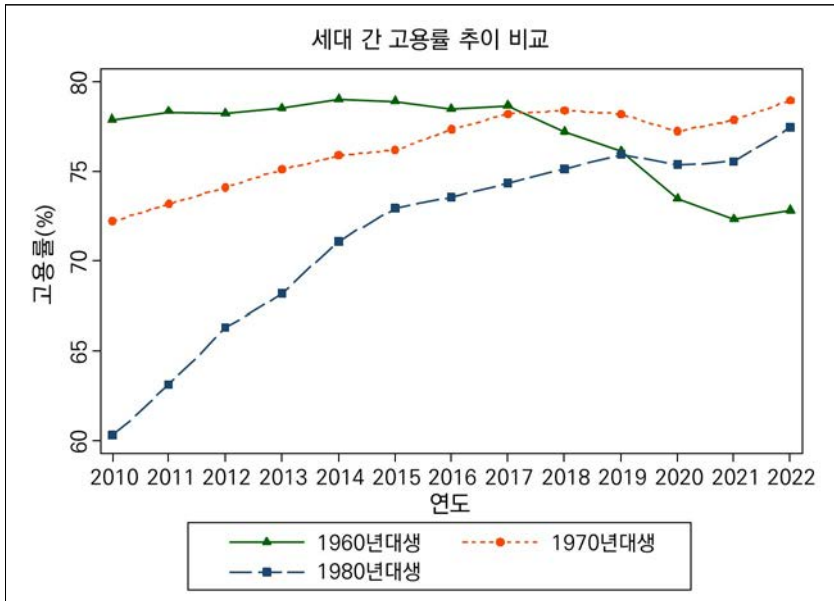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준 50대 중반 이후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였으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상당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대 들어와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늘어난 데 상당 부분 기인했을 수 있다.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경우 2018년까지 이전 세대인 1960년대생 대비 다소 높은 실업률을 보이다 2019년부터 낮아져 2022년까지 비교 대상 3개 세대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후속 세대인 1980년대생의 실업률이 중위 연령 기준 20대 중반 이후로 급속히 하락하긴 했으나, 2022년에도 위 두 세대 대비 여전히 다소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2-3]은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2010년 이후 고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대체로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참가율의 세대별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출생 세대의 경우 2017년까지 타 세대 대비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다가 2018년에는 1970년대생, 2020년에 이르러 1980년대생보다

[그림 2-3] 세대 간 고용률 추이 비교(2010~2022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낮은 수준으로의 고용률 하락을 경험하였다.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가까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경우 2010년 이후 대체로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을 보였고, 2018년 이후 비교 대상 3개 세대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생 역시 분석 대상 시기 동안 급속한 고용률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아직 1970년대생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1960년대 및 1970년대 출생자 간 동일 연령대 고용지표 비교

다음으로 1970년대생과 바로 윗세대인 1960년대생의 20대 및 3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활용하는 자료 특성상 특정 연도에서 20~29세 연령대 및 30~39세 연령대별 고용지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각 연령대를 구성하는 출생연도 기준 세대가 완전히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연도에 이십 대 및 삼십 대 등 특정 연령대를 구성하는 이들의 출생연도를 따져 볼 때 대체로 어떤 세대가 해당 연령대의 주류를 구성하는지는 정의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의 특정 연령대를 구성하는 10개 출생연도 중 특정 세대가 5개 연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해당 연도 해당 연령대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표 2-1 참조).

예를 들어 본 분석 대상 기간의 첫해인 1984년에 20~29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1955~1964년인데, 이 중 1960년대생에 해당하는 1960년 이후 출생자가 총 10개 연도 중 5개 연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4년의 경우 20대 연령대 해당 출생연도가 1965~1974년인데, 1960년대생(1965~1969년 출생) 및 1970년대생(1970~1974년 출생)이 각각 5개 연도씩을 차지하여, 두 세대 모두 1994년 20대 연령대의 주류 세대로 간주한다.

한편 198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값을 활용하는 분석 특성상, “실업자” 정의 시 1999년에 도입된 현재의 “구직기간 4주 기준”이 아닌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정의된 통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과는 괴리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2-1〉 연도 및 연령대별 주류 세대 정의

	20대 주류 세대	30대 주류 세대
1984~1994년	1960년대생	-
1994~2004년	1970년대생	1960년대생
2004~2014년	1980년대생	1970년대생
2014~2022년	-	1980년대생

자료 : 저자 작성.

가. 1960년대 및 1970년대 출생자 간 20대 당시 고용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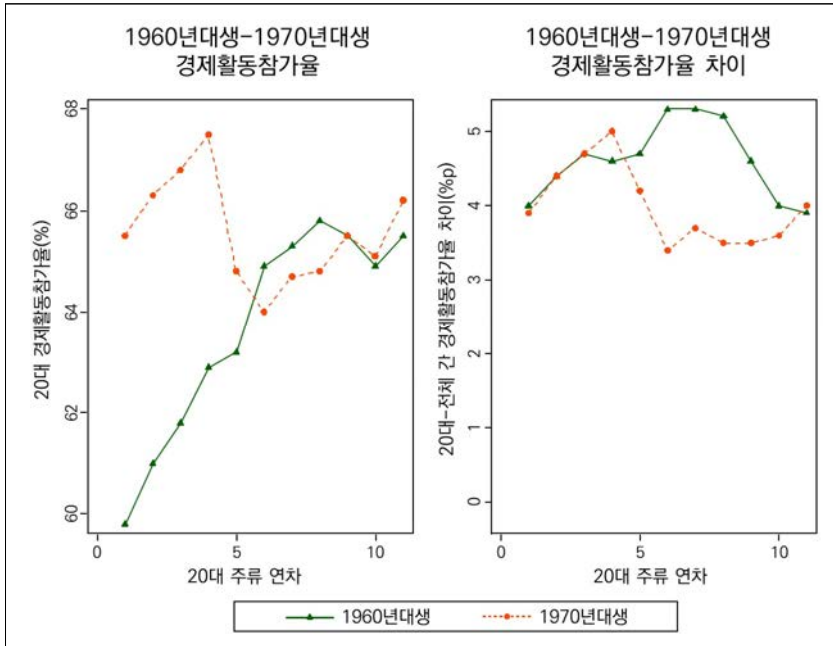
〈표 2-1〉에 정의된 특정 연도 연령대별 주류 세대 기준으로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4]의 좌측 그래프는 두 세대의 20대 주류 시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연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이때 1960년대생의 경우 20대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1년 차는 1984년이고, 그 이후 11년 차인 1994년에 20대의 주류로서의 마지막 연차를 맞는다. 한편 1970년대생의 20대 주류 시기 1년 차는 1994년, 마지막 11년 차는 2004년이다. 즉 [그림 2-4]의 좌측 그래프는 20~29세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의 1984년 및 1994년 값을 1차 연도로서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동 연령대 동 변수의 1994년 및 2004년 값을 11차 연도로서 비교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래프이다.

한편 [그림 2-4]의 우측 그래프는 연차별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을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비교할 때 각 시점 고유의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에 따른 영향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당시 각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동 시점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과의 차이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에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2-4]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를 놓고 보면 각 세대가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1970년대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60년대생보다 전반기 연차를 중심으로 더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연령대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를 산정하여 비교해 보면, 중후반기 연차를 중심으로 1960

[그림 2-4]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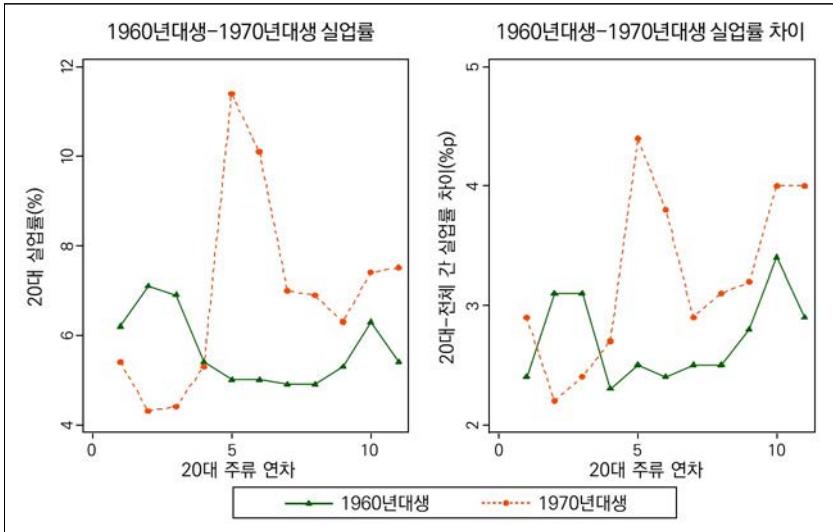
주 :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년대생이 1970년대생 대비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2-5]는 위에서 살펴본 [그림 2-4]와 같은 설정하에 살펴보는 고용지표를 실업률로 대체한 점만 다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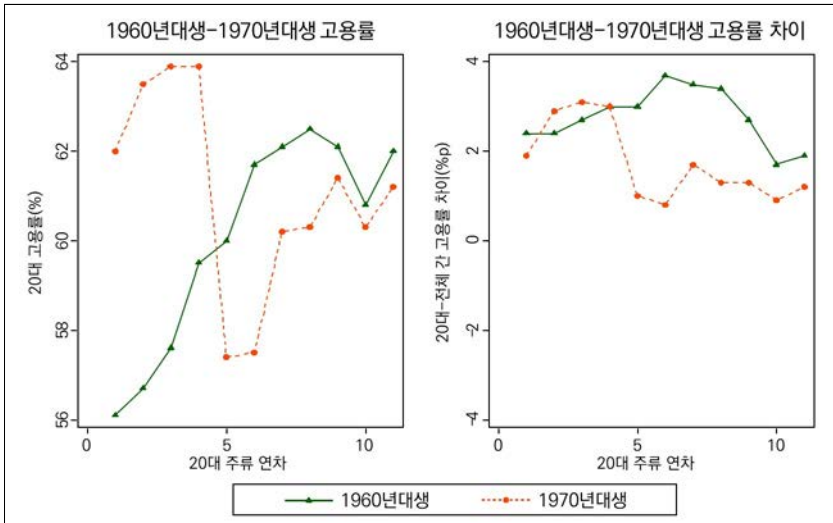
[그림 2-5]에 따르면,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4차 연도 이후 1970년대생의 20대 당시 실업률이 1960년대생 대비 높게 나타나고, 특히 IMF 구제금융을 초래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동일 연차에 대해 실업률 자체로 비교하든(11.4% 대 5.0% 및 10.1% 대 5.0%), 혹은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실업률을 비교하든(4.4%p 대 2.5%p 및 3.8%p 대 2.4%p) 1970년대생의 실업률이 1960년대생 대비 뚜렷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20대 동일 연차 실업률의 차이는 2004년까지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림 2-5] 20대 당시 실업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6] 20대 당시 고용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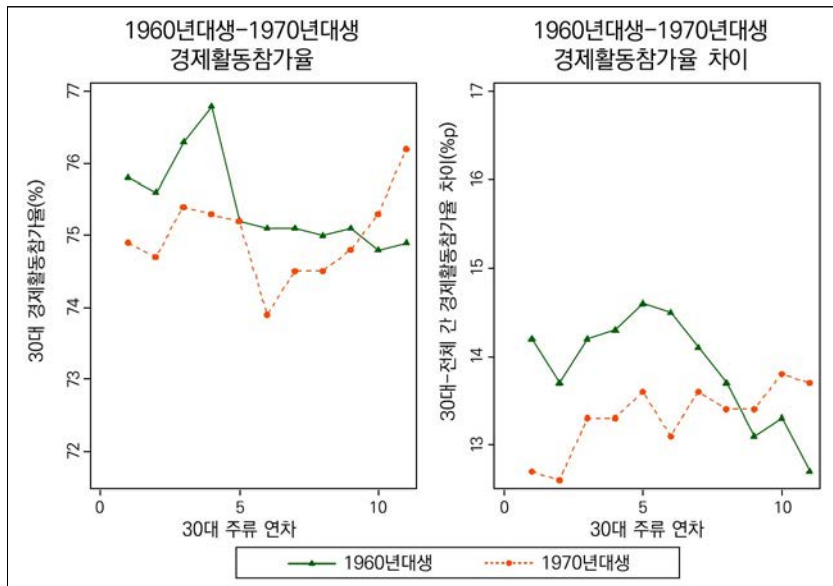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6]은 이제 고용률 지표를 기준으로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이 각각 20대 연령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를 연차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업률 지표를 비교할 때와 유사하게,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IMF 구제금융 이후 시기부터 1970년대생의 고용률이 이전 대비 급락하여 고용률 값 자체를 비교하든 전체 연령대 대비 고용률 차이를 보든 관계없이 마지막 연차까지 1960년대생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고용률 지표를 나타낸다.

나. 1960년대 및 1970년대 출생자 간 30대 당시 고용지표 비교

지금까지 각 세대의 2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하였다. 이제 <표 2-1>에 정의된 특정 연도 연령대별 주류 세대 기준을 따라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을 연차별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2-7] 3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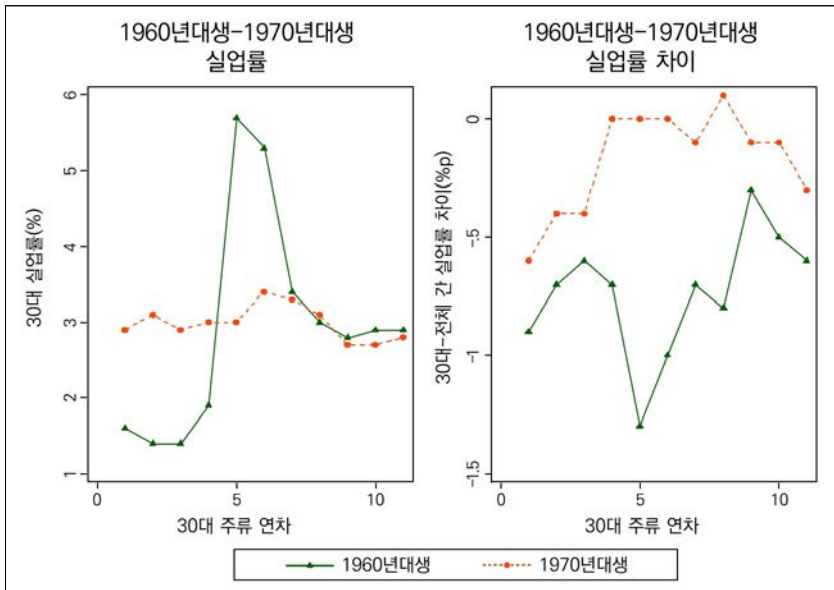
주 :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7]은 우선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이 각각 30~39세 연령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를 연차별로 비교하여 나타낸다.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를 비교할 때 특정 세대의 경제활동참가가 더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별로 엇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을 감안하여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의 차이를 세대 간에 비교해 보면, 1~8차 연도까지는 1960년대생의 경제활동참가가 1970년대생 대비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연차를 비교할 때 1970년대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다.

[그림 2-8]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실업률을 연차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실업률 값 자체를 직접 비교하면 초반 연차에는 1970년대생의 실업률이 더 높다가 중반 연차에 IMF 구제금융을 촉발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60년대생의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후반 연차에는 두 세대 간에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2-8] 30대 당시 실업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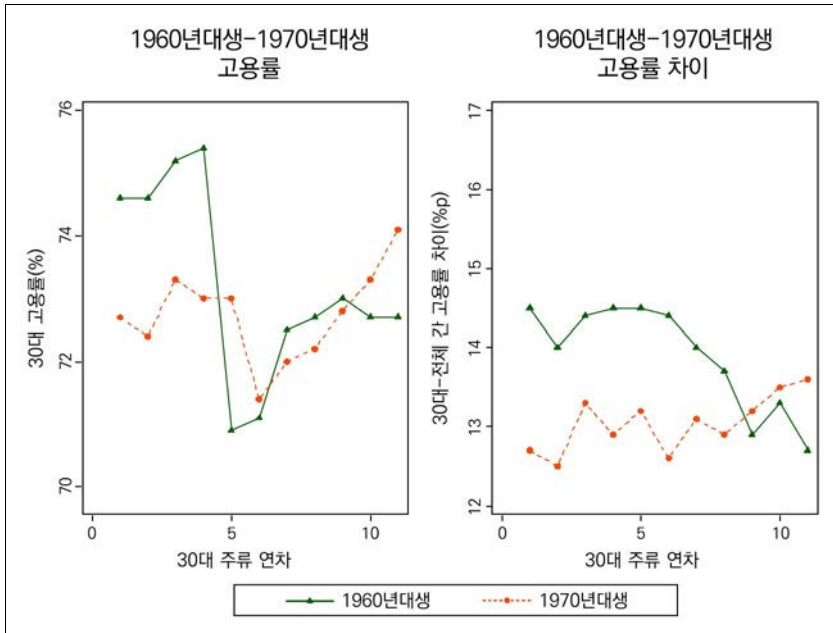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다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실업률을 두 세대 간에 비교해 보면, 비교 연차 내내 1970년대생의 30대 초과 실업률이 1960년대생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 심지어는 1960년대생이 30대 연령대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닥뜨린 시기에 해당하는 연차에 1970년대생과 1960년대생 간 초과 실업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86세대의 바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노동시장에서 그 직격탄을 맞은 반면, 86세대는 상대적으로 무사히 위기를 벗어나면서 향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이철승(2019)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그림 2-9]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고용률을 연차별로 비교한다. 고용률 값 자체 비교 시 두 세대 간 연차별 고용률이 엇치락뒤치락 하면서 특정 세대의 고용률이 30대

[그림 2-9] 30대 당시 고용률 :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당시 더 높았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고용률을 비교하면, 8차 연도까지 1960년대생의 초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다가 9차 연도 이후 1970년대생의 초과 고용률이 1960년대생을 앞지르고 있다.

3.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 간 동일 연령대 고용지표 비교

앞서 1970년대생의 20대 및 30대 당시 고용지표를 바로 윗세대인 1960년대생과 비교하였다. 이제 1970년대생의 바로 아랫세대인 1980년대생과 20대 및 3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때에도 활용하는 자료 특성상 특정 연도에서 20~29세 연령대 및 30~39세 연령대별 고용지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각 연령대를 구성하는 출생연도 기준 세대가 완전히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므로 특정 연도에 대체로 어떤 세대가 각 연령대의 주류를 구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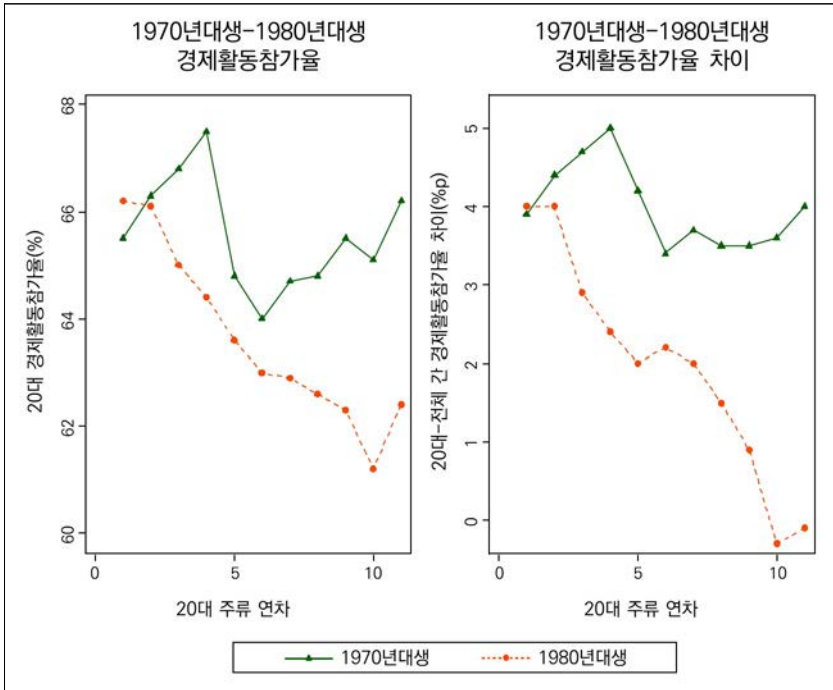
한편 2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할 때 1994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통계값을 활용하는 분석 특성상, “실업자” 정의 시 1999년에 도입된 현재의 “구직기간 4주 기준”이 아닌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정의된 통계를 활용하였다. 한편 3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할 때에는 2004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행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를 사용하였다.

가.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 간 20대 당시 고용지표 비교

〈표 2-1〉에 정의된 특정 연도 연령대별 주류 세대 기준으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2-10]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차별로 비교한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2-10]의 좌측 그래프는 경제활동참가율 값 자체를 비교하고, 우측 그래프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산정하여 연차별로 비교한다.

[그림 2-10]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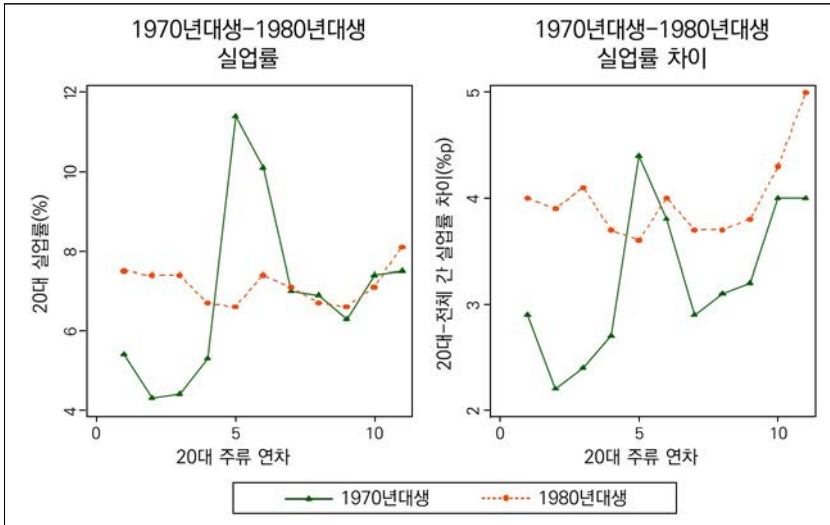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참가율 값 자체를 비교하던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참가율을 비교하던, 1970년대생의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대생의 20대 당시 대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격차는 후반 연차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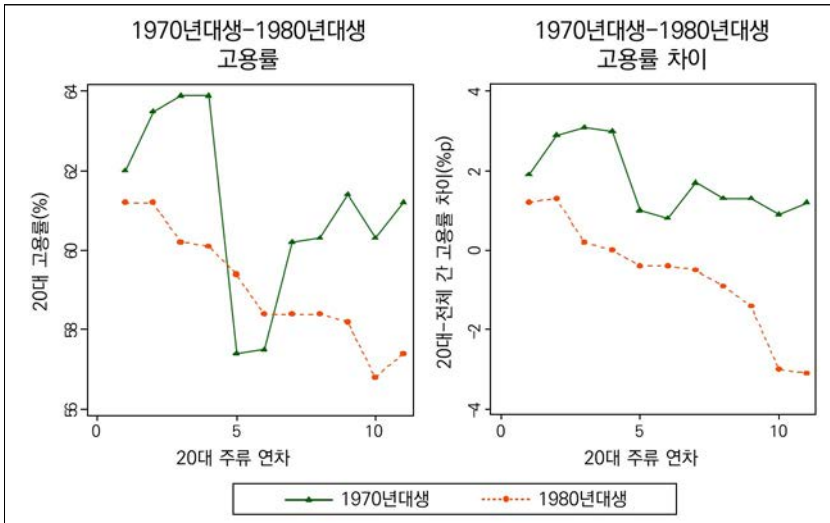
[그림 2-11]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실업률을 연차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실업률 값 자체를 비교하는 경우 연차별로 엇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느 세대의 20대 당시 실업률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 상황 대비 20대 당시 초과 실업률을 산정하여 비교하면, 1970년대생이 20대를 보내던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해당하는 1개 연차를 제외하면 1980년대생의 초과 실업률이 1970년대생 대비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20대 당시 실업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주 :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12] 20대 당시 고용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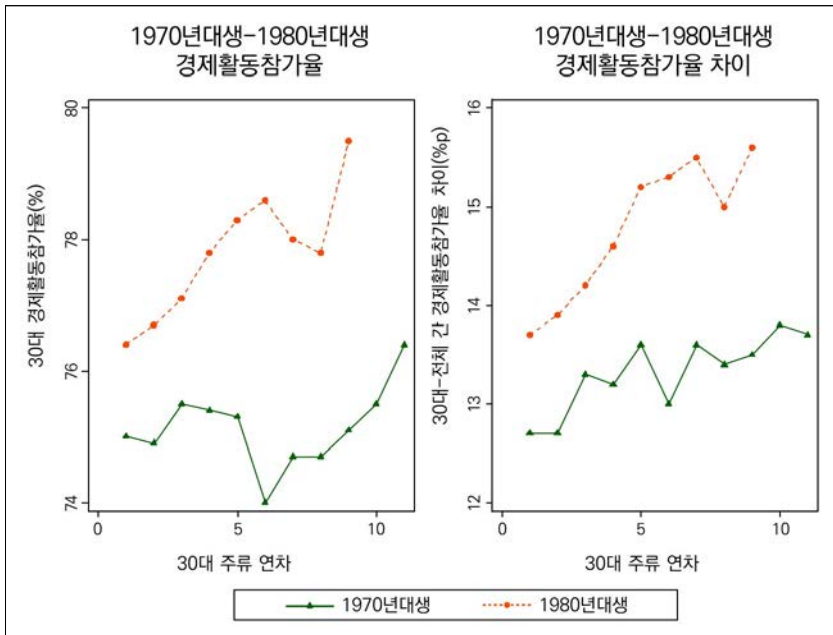
주 :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1963~2014년)”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다음으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2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고용률을 연차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2-12]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률 값 자체를 비교할 때 1970년대생에게 외환위기 직후를 나타내는 2개 연차를 제외하면 1970년대생의 20대 당시 고용률이 1980년대생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고용률 기준으로 비교하면, 모든 연차에서 1970년대생의 고용률이 1980년대생의 20대 당시 고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 간 30대 당시 고용지표 비교

이제 앞서 살펴 본 20대 당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고용지표 비교에 이어, 이들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

[그림 2-13] 3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 기준, 1999~현재)”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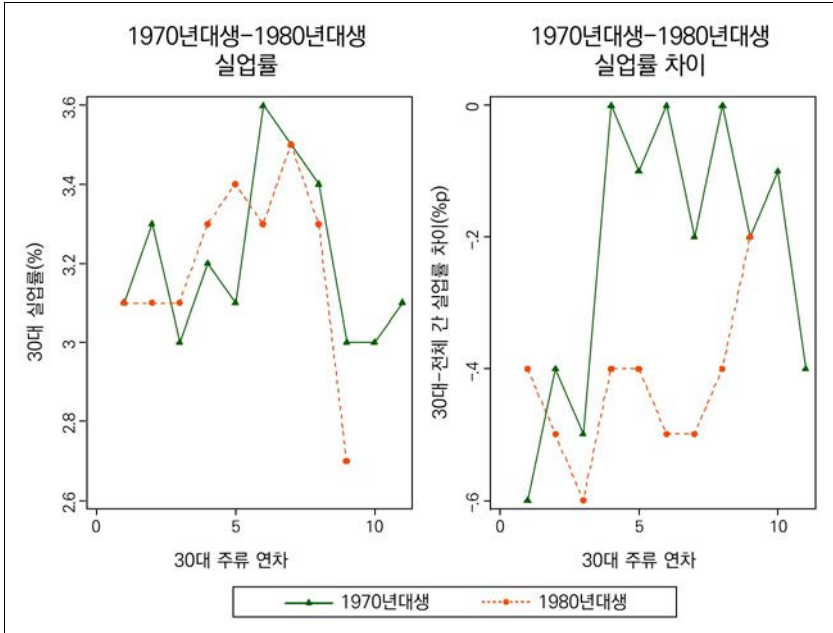
를 및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2-13]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차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다만 1980년대생이 30대의 주류를 이루는 시기가 본 연구수행 시점보다 미래인 2024년까지 펼쳐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통계는 2022년까지만 가용한 관계로 1980년대생의 그래프는 9차 연도까지만 그려져 있다.

30대 당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경제활동참가율 값 자체와 전체 연령 대비 초과치를 비교할 때, 1980년대생의 3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자가 1970년대생 대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20대 당시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든 1970년대생이 대체로 1980년대생보다 더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그림 2-14]는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그림 2-14] 30대 당시 실업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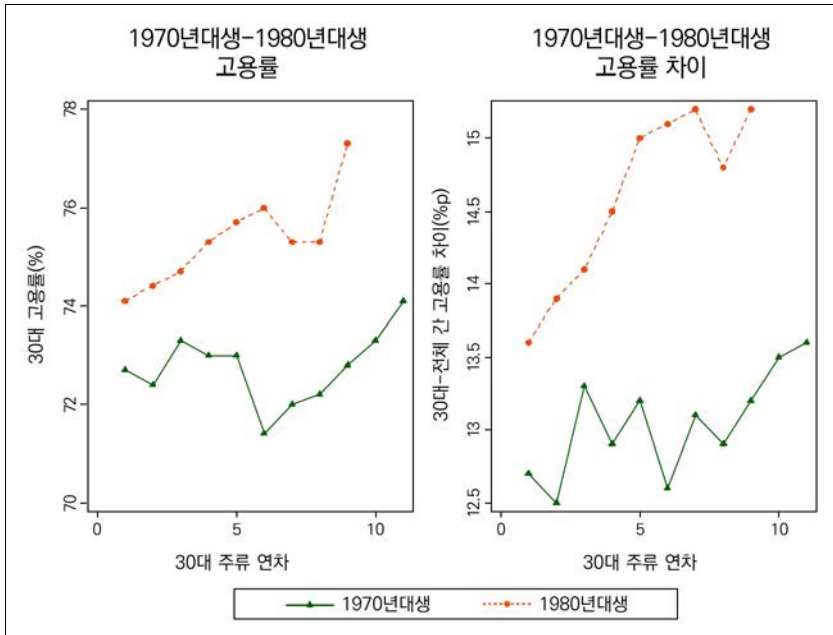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 기준, 1999~현재)”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시기의 실업률을 연차별로 비교한다. 실업률 값 자체 비교에서는 어느 세대의 30대 당시 실업률이 더 높거나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전체 연령대 대비 초과 실업률을 비교하면, 비교 가능한 9개 연차에 대해 1970년대생의 30대 당시 실업률이 1980년대생보다 대체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20대 당시 1980년대생의 전체 연령 대비 초과 실업률이 1970년대생 대비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2-15]는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이 각각 30대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고용률을 연차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고용률 값 자체를 비교하든 전체 연령 대비 초과 고용률을 산정하여 비교하든, 30대 당시 1980년대생의 고용률이 1970년대생 대비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대 당시 고용률을 비교할 때 1970년대생의 고용률이 1980년대생 대비 대체로 더 높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림 2-15] 30대 당시 고용률 :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중 “경제활동인구총괄(구직기간 4주 기준, 1999~현재)” 항목을 활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4.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고용지표 비교 결과 요약

앞서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 간 동일 시점과 동일 연령대일 때의 고용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후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고용지표 추이를 비교하면, 최근 연도에 들어와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각종 고용지표가 비교 대상 3개 세대 중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생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에 가까워진 영향 등으로 2010년대 후반 이후 고용지표 악화가 두드러지고, 1980년대생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 내내 고용지표 향상이 급속하게 나타나나 아직 1970년대생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2) 동일 연령대일 때의 고용지표를 1970년대생과 1960년대생 사이에 비교할 때, 각 세대의 20대 시기와 30대 시기를 통틀어 1970년대생의 고용지표가 1960년대생 대비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특히 20대 당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할 때 1970년대생이 외환위기를 겪은 시점 이후로 동일 연차 기준 1970년대생의 고용지표가 1960년대생 대비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세대 간 격차는 30대 당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할 때 대체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철승(2019)이 지적한 대로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충격을 직접 겪은 세대와 대체로 회피한 세대 간의 차이가 외환위기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역시 동일 연령대 고용지표를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사이에 비교해 보면, 각 세대의 20대 당시 고용지표에 있어 1970년대생이 대체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30대 당시 고용지표를 비교할 때에는 1980년대생이 1970년대생 대비 전반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생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참여 시기가 1970년대생 대비 늦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이용호·김민수(2022), 정도범(2021), 최요한(2018) 등이 실증적으로 규명한,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서 시작하는 경우 향후 일자리에서도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어려워지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의 발생을 우려하여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추세가 본격화된 첫 세대가 1980년대생이었던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1970년대생이 20대이던 외환위기 당시 겪은 커다란 고용충격의 여파가 30대까지 상당 부분 이어진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30대 여성의 경우 1980년대생의 노동시장 참여가 1970년대생 대비 더 적극적인 것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X세대의 경제적 지위 및 인접 세대와의 비교

본 절에서는 1970년대에 출생한 X세대의 경제적 지위를 인접 세대인 1960년대 및 1980년대 출생자와 비교하고, 두드러지는 차이 및 그 이유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나타난 X세대의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등 측면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인접 세대와 비교할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0년에 「가계금융조사」로 시작되어 2011년까지 2년간 시행되었고, 2012년 이후 복지 부문 조사를 추가하여 본 연구 시점에서 2022년 조사 자료까지 가용한 상태이다. 다만 조사 응답 기준 시점이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당해 2월 말(2010년) 혹은 3월 말(2011년 이후), 소득 및 소비의 경우 조사 전년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인 관계로, 오종현·최충(2017) 등 선행연구에서처럼 실제 조사된 결과는 조사 연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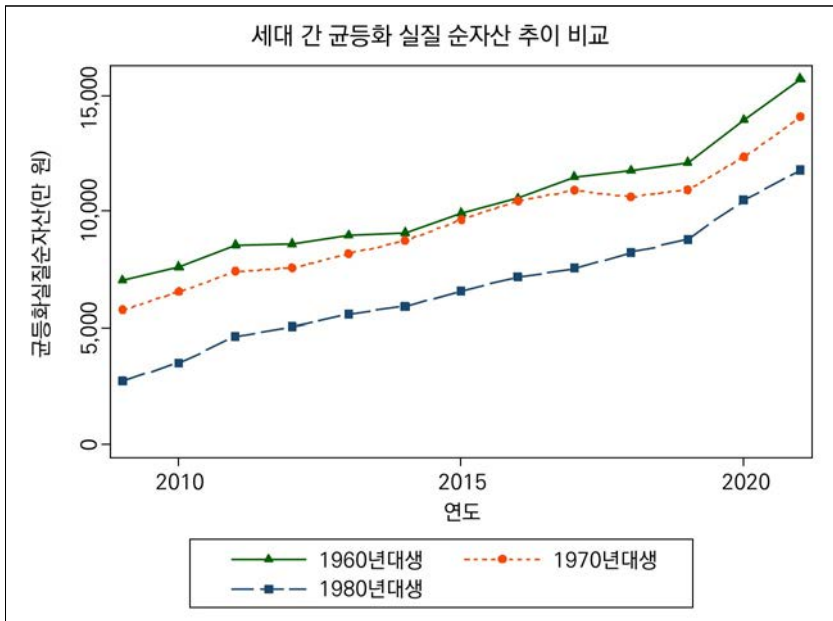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균등화된 가구별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의 증릿값을 세대 간에 비교한다. 즉 각 세대 개인 간 비교가 아닌, 가구주가 각각 1960년대생,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인 가구 간 비교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순자산 및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연도 기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 나타난 2009~2021년 기간의 실태를

활용한다. 다만 소비지출의 경우 2012년 복지 부문 조사 추가 이후의 자료가 가용하여 2011~2021년 기간에 대해 분석 가능하다. 모든 연도별 명목 변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소비자물가조사 항목에서 조희한 2009년 이후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09년 불변 가격 기준 실질 변수로 변환하였다.

1.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비교

[그림 2-16]은 2009~2021년 사이 균등화된 실질 순자산의 추이를 가구주 세대 간에 비교한 것이다. 분석 대상 기간 내내 모든 세대에서 균등화 실질 순자산의 증위값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세대 간 비교를 해보면, 모든 분석 대상 연도에 대해 1960년대생의 균등화 순자산이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대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생과 비교해 보면

[그림 2-16]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순자산 추이 비교(2009~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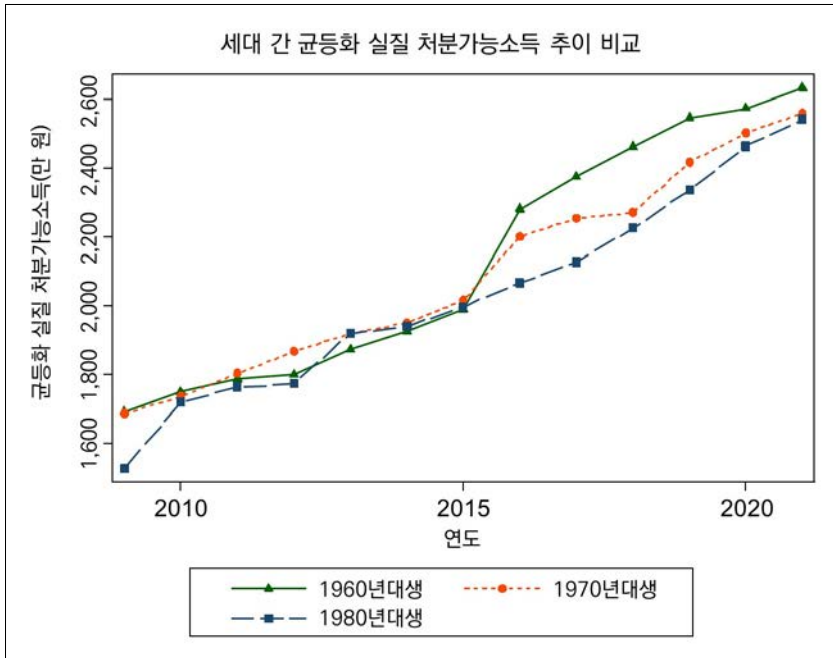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2010년대 중반 잠시 그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2010년대 후반 이후 그 차이가 다시 증가하였다. 1970년대생 X세대에 초점을 맞추면 이들이 가구주인 가구가 보유한 균등화 순자산은 1960년대생과 1980년대생 사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그림 2-17]은 2009~2021년 사이 균등화된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세대 간에 비교하여 보여준다. 분석 기간 내내 모든 세대의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증릿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세대 간 비교 시 2010년대 중반까지는 3개 세대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가, 2016년 이후에 1960년대 출생 세대의 후속 세대 대비 우위가 뚜렷해진다. 2015년 이전에는 주로 근로소득의 영향이 작용하여 40대 이후 연령대에 도달한 1960년대생과 그 아래 연령대인 후속 세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 보유 순자산의 세대 간 차이가 재산소득의 차

[그림 2-17]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 추이 비교(2009~2021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 자료.

이를 야기하여 1960년대생의 상대적 우위가 좀 더 명확해진 것으로 추측된다.³⁾

X세대에 초점을 맞춰 보면 2015년 이전 인접 세대보다 높은 처분가능소득 수준을 나타낸 시기가 있으나, 2016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1960년대생과 가장 낮은 1980년대생 사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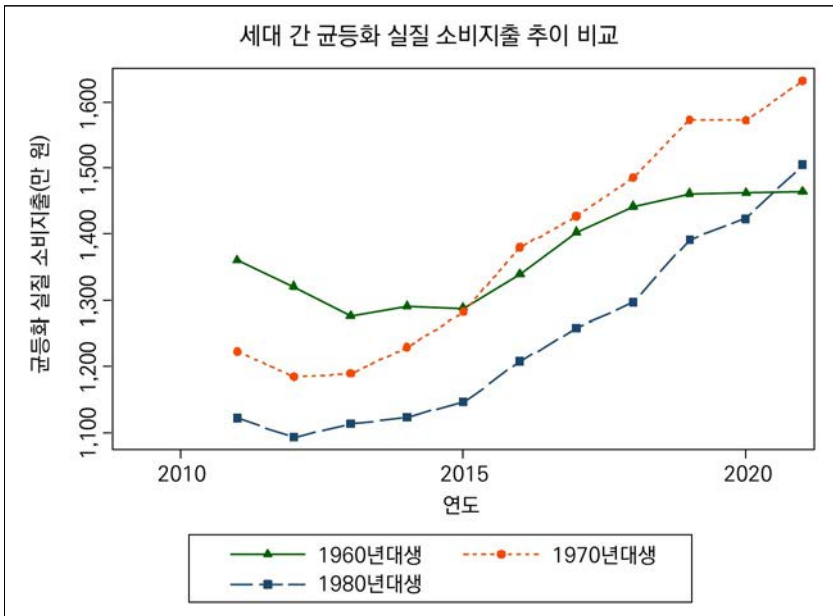
[그림 2-18]은 2011~2021년 사이 균등화된 실질 소비지출의 추이를 세대에 비교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비지출은 개인이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정되는 효용(utility)과 직결된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으로 저축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 향후 노후 대비 등에 있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18]에 따르면 비교 대상 세대들에서 공통적으로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의 증릿값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다만 2013년 이후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1960년대생의 경우 그 상승 추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에 있어 1960년대생이 보이는 타 세대 대비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인 점이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균등화 소비지출 증가세의 차이로 인해, 2010년대 초반에는 1960년대생의 균등화 소비지출이 타 세대 대비 높았으나 2016년에 1970년대생에게 역전당하여 그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고, 2021년에는 1980년대생과 비교해도 균등화 소비지출이 더 낮게 나타난다. X세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가장 높은 1960년대생과 가장 낮은 1980년대생 사이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인접 세대 대비 더 높은 소비지출을 나타낸다.

3)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 조사부터 매년 표본의 20%를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연동 패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실제 조사된 결과가 조사 연도보다 1년 앞서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0% 표본 교체가 세대 간 비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림 2-17]에서 2015년과 2016년 사이 외에는 특별히 세대 간 차이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과 2016년 사이 1960년대생의 급격한 소득 증가를 표본 부분 교체의 영향으로 간주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그림 2-18] 세대 간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 추이 비교(2011~2021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2.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비교

위의 [그림 2-16]~[그림 2-18]에서 살펴본 것은 동일 연도에 나타나는 다른 세대 간 차이이다. 즉 세대 간에 연령대가 달라 발생하는 차이는 통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래 제시할 [그림 2-19]~[그림 2-21]은 동일 연령대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의 차이가 어떠한지 보여준다.

이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작 시점이 2010년(조사 자료는 2009년 기준)인 관계로, 세대 간 동일 연령대 비교를 위해 정확하게 사용 가능한 비교 연도 조합은 2009~2019년, 2010~2020년, 2011~2021년 등 3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소비지출의 경우, 해당 항목 조사가 2012년에 시작된 관계로 비교 연도 조합으로서 2011~2021년만이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2-2〉 비교 연도 및 각 세대별 연령대

	1960년대생	1970년대생	1980년대생
2009~2011년	40대 중반	30대 중반	
2019~2021년		40대 중반	30대 중반

주: “40대 중반” 혹은 “30대 중반”은 각 연령대 중위 연령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1964년 및 1965년생의 경우 2009년에는 각각 45세 및 44세, 2011년에는 47세 및 46세로 대체로 40대 중반에 해당함. 다만 각 세대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연도 출생자의 경우 40대 중반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40대 중반” 혹은 “30대 중반”으로 표현하는 것은 편의상 목적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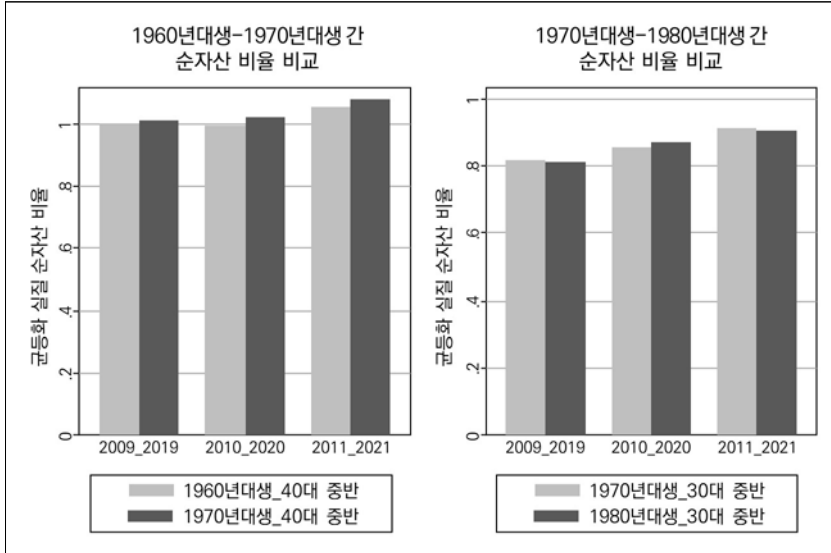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동일 연령대에서 각 세대의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을 비교할 때,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령대 중위 연령 기준 40대 중반 시기의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다. 더불어 중위 연령 기준 30대 중반 시기의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표 2-2 참조). 반면 30대 당시 1960년대생 및 1970년대생 간 비교는 자료의 한계로 불가능하고, 40대 당시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간 비교 혹은 50대 당시 1960년대생 및 1970년대생 간 비교는 본 연구 시점보다 미래에나 가능하다.

[그림 2-19]는 비교 가능한 조합에 대해 세대 간 동일 연령대 순자산의 증릿값이 해당 시점의 전체 세대, 즉 본 연구의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세대를 포괄하여 산정된 순자산 증릿값 대비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 값이 1보다 크다면 해당 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균등화된 실질 순자산의 증릿값이 전체 세대의 증릿값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세대별 중위 연령 기준 40대 중반 시기의 순자산 비율을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간에 비교할 때, 1970년대생의 전체 세대 증릿값 대비 비율이 1960년대생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30대 중반 시기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순자산 비율을 비교할 때에는 비교 연도 조합 3개에 대해 어느 세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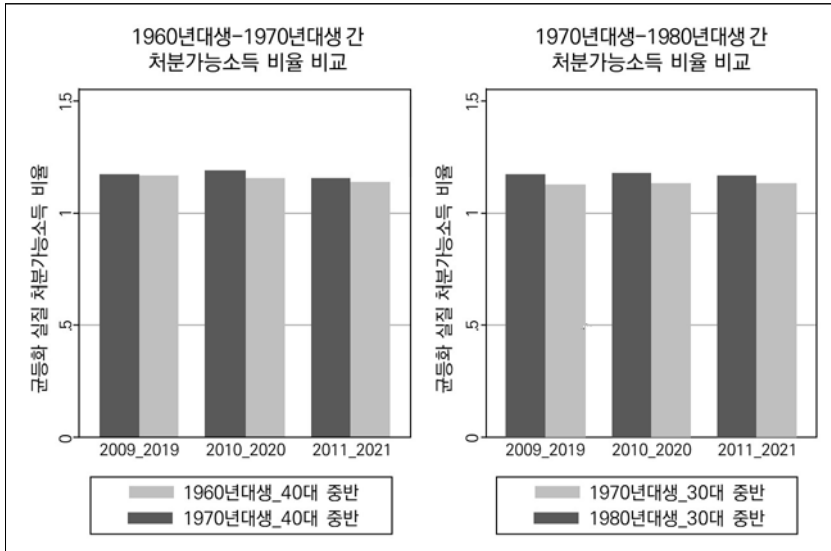
한편 [그림 2-20]은 세대별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증릿값의 전체 대비 비율이 동일 연령대에서 세대 간에 어떻게 비교되는지 나타낸다. 같은 40대 중반 연령대에서 1960년대생의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1970년대생 대비 모

[그림 2-19]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순자산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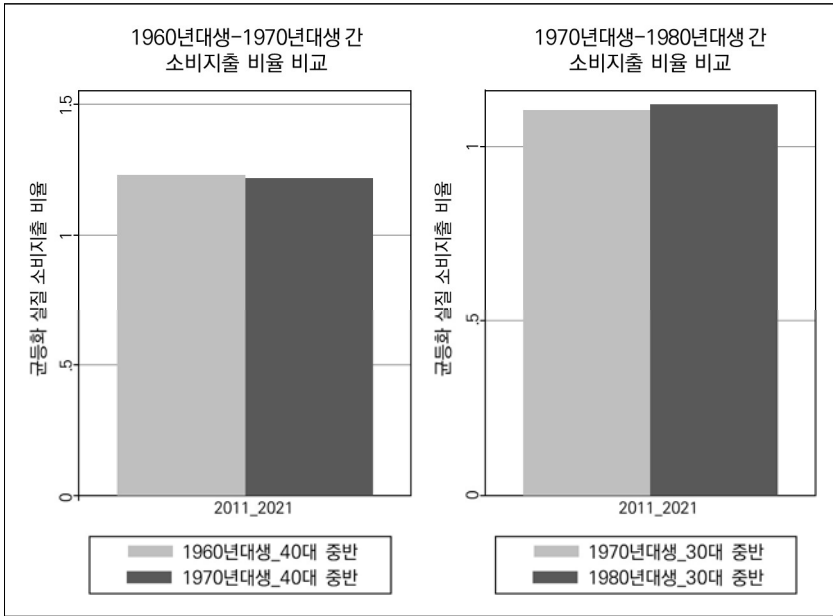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그림 2-20]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 비율 비교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그림 2-21] 세대 간 동일 연령대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 비율 비교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든 비교 연도 조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30대 중반 연령대에서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할 때, 1970년대생의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모든 연도 조합에서 1980년대생 대비 더 높다.

마지막으로 [그림 2-21]은 균등화된 실질 소비지출의 세대별 증릿값의 전체 세대 대비 비율이 동일 연령대에서 세대 간에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준다. 앞서 지적하였듯 소비지출 변수의 경우 비교 가능 연도 조합이 1개밖에 없는 관계로 더더욱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중위 연령 기준 40대 중반 시기 1960년대생의 소비지출 비율이 1970년대생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30대 중반 시점의 1970년대생 소비지출 비율은 1980년대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경제적 지위 비교 결과 요약

본 절에서 1970년대 출생 X세대와 그 인접 세대 간에 순자산, 처분가능

소득, 소비지출 등 측면에서 경제적 지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부터 2021년 사이 기간에 대해 각 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및 소비지출의 증릿값을 비교해 보면, X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은 가장 많은 1960년대생과 가장 낮은 1980년대생 사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인접 세대보다 처분가능소득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1960년대생과 가장 낮은 1980년대생 사이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2015년 이전에 가장 높은 1960년대생과 가장 낮은 1980년대생 사이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후 인접 세대 대비 더 높은 소비지출을 나타내었다.

(2) 세대 간 동일 연령대 비교가 가능한 연도 조합에 대해 40대 중반 시점의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비교하고, 30대 중반 시점의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한 결과, 균등화 실질 순자산의 전체 세대 대비 비율에 있어 X세대가 1960년대생 대비 우위를 나타내었고 1980년대생과 비교할 때에는 뚜렷한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균등화 실질 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40대 중반 시점에서 1960년대생 대비 낮으나, 30대 중반 시점에서 1980년대생과 비교하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균등화 실질 소비지출의 경우, 비교 가능 연도 조합이 하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40대 중반 시점에서 1960년대생과 비교할 때 및 30대 중반 시점에서 1980년대생과 비교할 때 모두 인접 세대 대비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인다.

제3절 소 결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인 1970년대 출생 X세대와 그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 및 경제적 지위를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본 장에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70년대 출생 세대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지표나 경제적 지위가 인접 세대보다 열악하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 시기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 고용지표에 있어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1970년대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등 항목을 활용하여 세대 간 경제적 지위를 2010년 이후 비교해 보더라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타 세대 대비 더 낮다고 볼 근거는 별다른 나타나지 않았다.

(2) 다만 20대 혹은 30대 동일 연령대일 때 각 세대의 고용지표가 어떠하였는지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은 극심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대체로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같은 20대일 때 윗세대인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같은 30대일 때를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하면 같은 20대일 때는 1970년대생이, 같은 30대일 때는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가 대체로 더 우월하였는데, 1980년대생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예전보다 늦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제 3 장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

본 장에서는 X세대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의 차이가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처럼 X세대라는 단일 세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 대상 표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세대 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본 장에서 수행될 분석의 토대를 제공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즉 본 연구가 사용할 자료 및 방법론과 유사하게,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사용할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Kahn(2010)

Kahn(2010)은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사

용하여 미국의 백인 남성 대졸자의 졸업 당시 전국 및 주(state) 실업률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학 졸업 시점 및 졸업 대학 소재지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Kahn(2010)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 당시 연령의 최빈치인 22세 때의 전국 실업률 및 14세 당시 거주하던 주의 22세 당시 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Kahn(2010)의 분석 결과, 졸업 당시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이들은 향후 유의하게 낮은 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요셉(2017)

한요셉(2017)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년 1~9차 자료를 사용하여, 첫 일자리 이행 소요 기간이 향후 임금 및 고용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한요셉(2017)은 최종학교 졸업 후 잠재 경력 연차에 따라 첫 일자리 이행 소요 기간이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정하였다.

한요셉(2017)은 이를 위해 OLS 및 졸업한 최종학교 소재 시도의 졸업 당시 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2SLS 추정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졸자 표본에서 첫 일자리 이행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유의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한요셉(2017)은 보인 바 있다. 이에 더해 한요셉(2017)이 첫 일자리 임금의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할 때, 첫 일자리 임금이 높아질수록 향후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Von Wachter(2020)

Von Wachter(2020)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기침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장기화가 우려되던 시점에, 당시까지 연구된 해당 주제 선행연구들을 광범위하게 서베이한 논문이다. Von Wachter(2020)는 노동시장 진입기 상황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결론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1) 대학 졸업생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 초기 노동시장 여건의 영향이 근로소득에 대해 향후 1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된다.

(2)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예를 들어 고졸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이 더 크고 지속 기간이 더 길다.

(3)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의 향후 근로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은 진입 당시의 실업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하다. 즉, 그 이후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4)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근로소득 감소는 노동공급의 감소가 아닌 시간당 임금률의 감소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5) 불리한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에 직면한 대학졸업자의 경우 저임금 직종 및 업종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이들 불운한 대학졸업자의 경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6) 노동시장 진입기에 경험한 높은 실업률의 부정적 영향이, 노동시장에 안착한 이후 직면한 높은 실업률이 갖는 부정적 영향보다 훨씬 크다.

(7) 노동시장 진입기에 직면한 어려움의 영향이 노동시장 진입 후 15년 이상이 지난 후 혹은 연령대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 다시 강해질 수 있다.

(8) 노동시장 진입기에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고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아닌 기타 빈곤 퇴치 정책 프로그램 수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9)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불리할수록 향후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한다.

(10) 불리한 노동시장 진입기를 겪은 개인은 가족 형성 및 범죄 행동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경기 후퇴를 경험했는지의 여부가 개인의 경제적 성공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상황이 불리할 때 학교를 중퇴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

4. Choi, Choi and Son(2020)

Choi, Choi and Son(2020)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및 그 이전과 이후에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향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에 있어 Choi et al.(2020)은 198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남녀 표본에 초점을 맞추었다.

졸업 당시의 전국 실업률의 차이가 Choi et al.(2020)의 분석에서 핵심 설명변수인데, 한요셉(2017)이 지역 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것과 차별화된다. Choi et al.(2020)은 졸업연도의 다항식을 통제하는 경우 각 졸업 코호트의 개별 특성이 노동시장 진입기의 실업률 변동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상정한다. 다만 Choi et al.(2020)은 이러한 가정이 졸업 연도를 개인이 내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인의 졸업 예측 연도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Choi et al.(2020)의 분석 결과, 졸업 시기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시절과 일치하여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불리했던 이들의 경우 남성 표본에서는 졸업 후 12년까지 고용 및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 표본에서는 초기 노동시장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졸업 후 2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Choi et al.(2020)은 보고하고 있다. Choi et al.(2020)은 남녀 간의 이러한 차이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 Bae and Kim(2023)

Bae and Kim(2023)은 한요셉(2017)과 마찬가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 자료를 사용하여, 졸업 대학 소재 지역 실업률이 향후 대학졸업자들의 월평균 임금 등 다양한 노동시장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졸업 연도 및 졸업 대학 소재지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Bae and Kim(2023)은 14세 당시 거주지의 대학 졸업 예측 연도 실업률을 도구

변수로 사용한 추정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Bae and Kim(2023)의 도구변수 추정 결과, 졸업 당시 실업률의 1%p 증가는 초기 월평균 임금의 8.77% 감소를 야기하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점차 감소하기는 하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하향 취업 확률 및 임시직 근로자일 확률 역시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Bae and Kim(2023)은 보였다.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단위 패널 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로서, 1998년 1차 조사 이후 2022년 25차 조사 자료까지 본 연구 시점에서 가용하다. 해당 자료의 경우 그 안에 3개의 다른 패널을 포함하는데, 1차 조사 때부터 이어져 온 98표본 및 2009년 조사 시 전국 대표성 강화를 위해 보완된 09통합표본, 그리고 2018년에 표본 가구 수의 대폭 확대가 이루어진 18통합표본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존재하는 3개의 별도 패널 중, 본 장에서는 20대 시절 이후 X세대 개인의 노동시장 이력 및 의식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오래된 패널인 98통합표본을 활용한다. 본 장의 연구 대상을 1970년대생 X세대로 지칭하고자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양력 기준 출생연월이 1970년 3월부터 1980년 2월 사이인 이들이다. 즉 출생연도 자체보다 초등학교(당시 명칭은 국민학교) 입학 시기가 같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코호트를 선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는 양력 혹은 음력 중 택하여 답변한 조사 대상 개인의 출생연도 및 생월과 생일이 가용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제공하는 “한국의 표준연력” 사이트(<http://manse.kisti.re.kr/>)상 양력-음력 변환 도구를 활용하면, 양력 기준 1970년 3월 1일은 음력 기준 1970년 1월 24일, 양력 기준 1980년 2월 29일은 음력 기준 1980년 1월 1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력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응답한 개인의 경우 1970년 1월 24일 이후 1980년 1월 14일 이전 출생자를 본 장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Choi et al.(2020) 등 국내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따라, 국내 소재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만 분석 대상 표본에 포함한다. 이 경우 X세대 전체를 포괄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 고졸 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1970년대 출생자의 과거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분석하여, 현재 청년세대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현재와 같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시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는, 예전 세대 고등교육 이수자에게 확실히 초점을 맞춘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hoi et al.(2020)에서처럼 다년도간 직장 재직 후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사례를 제외하기 위해 20세부터 32세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표본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의 졸업 연도는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포한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연도별 개인의 취업 여부이다. 더불어 임금 수준 및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여부도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X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 겪은 어려움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게 한다.

본 연구는 Choi et al.(2020)이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 출생자까지 포괄하는, 본 연구보다 훨씬 폭넓은 연령대 표본에 대해 본 연구보다 5년만큼 짧은 기간에 적용한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⁴⁾ 즉 한요셉(2017), 남재량(2021) 등을 따라 1970년대생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

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개인의 첫 일자리 관련 변수나 초기 경제활동 상태를 사용하는 대신, 졸업 연도의 전국 실업률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⁵⁾ 이때 실제 졸업 연도가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Choi et al.(2020)에서처럼 도구변수로서 졸업 예측 연도의 전국 실업률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 분석 대상 표본의 대학 졸업 연도인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전국 실업률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게시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 가능하다. 이처럼 1990년도 실업률부터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실업자 정의에 있어 1999년 이후 실시된 현행 구직기간 4주 기준이 아닌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그림 3-1]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구직기간 1주 기준 연도별 전국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해당 기간 대부분의 연도에는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유독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전국 실업률이 각각 7.0%와 6.3%로 확연히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 차이에 따른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이처럼 1990년대 후반 실업률이 급상승했던 시기와 나머지 연도 간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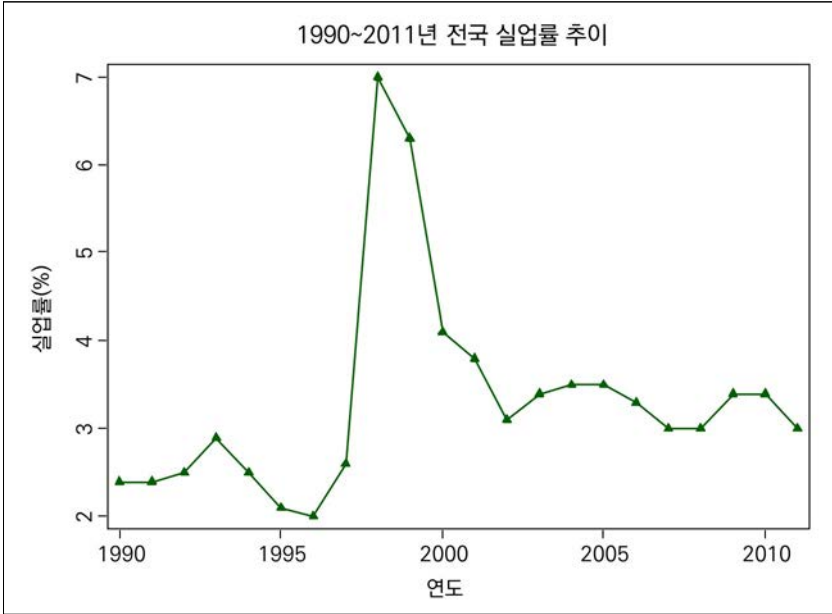
대학 졸업 연도의 전국 실업률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는 관계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기는 하나 고정효과 모형 분석은 불가능하다. 즉 시간 불변의 개인 특성, 예를 들어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역량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Choi et al.(2020)에서처럼 다수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OLS 모형을 추정하고, 뒤이어 도구변수(instrument)를 사용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기로

4) Choi et al.(2020)은 1989년과 2010년 사이 기간에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20~32세 연령대에 졸업한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 및 1980년대 출생 고등교육 이수자 중 다수가 표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5) Choi et al.(2020)은 다수 선행연구와는 달리 졸업 대학 소재 시도의 지역 실업률이 아닌 전국 실업률을 사용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의 경우 졸업 대학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임을 들고 있다. 실제 김세움 외(2022)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중 제주와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제외하면 대학 졸업 직후 일자리와 졸업 대학 소재지의 권역 일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림 3-1] 1990~2011년 연도별 전국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다. 종속변수가 취업자 더미 혹은 정규직 더미인 경우 물론 로짓(logit)이나 프로빗(probit) 모형 분석이 가능하나, 도구변수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형확률(linear probabil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OLS 모형 추정 시, 핵심 설명변수는 대학 졸업 연도의 전국 실업률과 잠재 경력 연차 더미의 교차항이다. 이때 잠재 경력은 조사 연도와 대학 졸업 연도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잠재 경력 연차 더미를 생성함에 있어, 잠재 경력 1~3년 차, 4~6년 차, 7~9년 차, 10~12년 차, 13~15년 차, 16~18년 차 및 19년 차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통제변수로서 Choi et al.(2020)이 사용한 사실상 모든 변수와 추가로 가족 배경 관련 일부 변수를 더 통제하였다. 즉 잠재 경력 1년 단위 연차 더미, 성별 더미, 4년제 대학 졸업 더미, 졸업 대학 소재 시도 더미,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 수준 더미(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상), 14세 무렵 부모의 종사상 지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무직 혹은 주부),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 최하위) 및 연도 더미를 통제함으로써, OLS 추정 시 가능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Choi et al.(2020)과 마찬가지로 졸업연도 코호트의 추세를 통제하고자 졸업 연도의 3차식을 추가 통제하였다.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따질 때, 졸업 연도 수준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본 장의 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_e UR_c + \gamma' X_{i,t} + f(c) + \lambda_t + \epsilon_{i,t}$$

위 식에서 $Y_{i,t}$ 는 연도 t 에서 개인 i 의 취업자 여부 등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낸다. UR_c 는 대학 졸업 연도 c 의 전국 실업률을 의미하고, 그 추정계수는 β_e 로서 잠재 경력 e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때 실제 추정에서는 UR_c 와 잠재 경력 3년 단위 연차 더미 간 교차항들이 모형의 핵심 설명변수가 된다. 한편 위 식에서 $X_{i,t}$ 는 통제변수 벡터, $f(c)$ 는 졸업 연도 c 의 3차식이고, λ_t 는 t 연도 더미, $\epsilon_{i,t}$ 는 오차항이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표 3-1〉은 본 장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먼저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표본에서 취업 상태인 개인-연도 셀의 비중이 대략 73%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개인-연도 셀에 대해 1998년 불변 가격 기준 월평균 실질임금의 증릿값은 165만 원 남짓, 산술평균은 179만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역시 임금근로자 개인-연도 셀 중에서 정규직 비중은 대략 78% 안팎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학 졸업 당시 전국 실업률의 증릿값은 3.3%이고, 산술평균은 3.7%

남짓이다. 1990년대 후반 타 연도 대비 실업률이 확연히 높았던 시기의 영향으로 산술평균이 증윗값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잠재 경력의 평균은 대략 13년가량이나 한국노동패널 2022년 조사 자료까지 분석에 사용하는 관계로 최대 32년까지 뻗어 있는 개인-연도 셀이 존재한다.

〈표 3-1〉에 따르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만으로 구성된 분석 대상 표본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중은 개인-연도 단위 기준 33%가량으로 나타난다. 대학 졸업 연도의 평균은 1999년 안팎으로, 분석 대상 표본 중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급등했던 시기 부근에 졸업한 이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가족 배경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개인-연도 단위 기준으로 볼 때 부의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의 비중이 89%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전문대졸 이상 고등교육 이수자 아버지를 둔 비중은 11%가량에 불과하다. 분석 대상 표본 중 고등교육 이수 어머니를 둔 비중은 3%가량으로 더욱 낮다. 14세 무렵 부모의 종사상 지위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인 비중(42% 안팎)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비중(38% 안팎)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예측 가능하듯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1-5단계 척도 중 3단계 중간에 속했다고 답변한 비중이 59%가량으로 확연히 크다.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하위 혹은 최하위였다고 응답한 비중을 합하면 상위 혹은 최상위 답변을 합한 비율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 3-1〉 기초통계

변 수	산술 평균	증윗값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 수
취업자 더미	0.73	1	0.44	0	1	13,750
월평균 실질임금(만 원, 1998년 불변 가격)	178.91	165.44	93.49	0	2,600.78	8,498
정규직 더미	0.78	1	0.42	0	1	6,975
대학 졸업 연도 전국 실업률(%)	3.74	3.3	1.60	2.0	7.0	13,750
잠재 경력(년)	13.47	13	6.58	1	32	13,750
남성 더미	0.50	0	0.50	0	1	13,750

〈표 3-1〉의 계속

변 수	산술 평균	중윗값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 수
4년제 대학 졸업 더미	0.33	0	0.47	0	1	13,750
대학 졸업 연도(년)	1998.52	1999	3.49	1990	2011	13,750
대학 소재지 더미_서울	0.15	0	0.35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부산	0.11	0	0.32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대구	0.09	0	0.29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대전	0.04	0	0.20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인천	0.06	0	0.24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광주	0.05	0	0.22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울산	0.01	0	0.10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경기	0.15	0	0.36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강원	0.03	0	0.18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충북	0.03	0	0.16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충남	0.03	0	0.18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전북	0.05	0	0.21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전남	0.03	0	0.18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경북	0.07	0	0.25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경남	0.09	0	0.28	0	1	13,574
대학 소재지 더미_제주	0.00	0	0.05	0	1	13,574
부 교육수준_고졸 미만	0.46	0	0.50	0	1	13,003
부 교육수준_고졸	0.43	0	0.50	0	1	13,003
부 교육수준_전문대졸 이상	0.11	0	0.32	0	1	13,003
모 교육수준_고졸 미만	0.70	1	0.46	0	1	12,875
모 교육수준_고졸	0.27	0	0.45	0	1	12,875
모 교육수준_전문대졸 이상	0.03	0	0.17	0	1	12,875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정규직 임금근로자	0.42	0	0.49	0	1	13,321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비정규직 임금근로자	0.07	0	0.26	0	1	13,321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종업원 있는 고용주	0.12	0	0.33	0	1	13,321

〈표 3-1〉의 계속

변 수	산술 평균	중윗값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 수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0.38	0	0.48	0	1	13,321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가족 종사자	0.01	0	0.07	0	1	13,321
14세 무렵 부모 종사상지위 _무직 및 주부	0.00	0	0.06	0	1	13,321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_ 최상위	0.02	0	0.15	0	1	12,898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_ 상위	0.14	0	0.35	0	1	12,898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_ 중위	0.59	1	0.49	0	1	12,898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_ 하위	0.20	0	0.40	0	1	12,898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_ 최하위	0.05	0	0.21	0	1	12,89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졸업 연도 실업률과 향후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표 3-2〉는 OLS 분석을 통해 과거 X세대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던 연도에 직면한, 전국 실업률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그 후 이들의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및 정규직 여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종속변수 중 취업자 더미는 취업자인 경우 1, 미취업자(실업자 혹은 비경활)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이다. 임금 수준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연도별 월평균 명목임금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된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1998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실질임금으로 환산하였다. 더불어 학계의 관행을 따라, 연도별로 부정확한 수치가 포함될 확률이 높은

〈표 3-2〉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 O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취업자 더미	log(월평균실질 임금)	정규직 더미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0.0180* (0.0100)	-0.0007 (0.0077)	0.0077 (0.0090)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058 (0.0182)	-0.0017 (0.0098)	0.0230 (0.0139)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089 (0.0067)	0.0140*** (0.0067)	0.0069 (0.0066)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042 (0.0069)	0.0182 (0.0130)	-0.0050 (0.0095)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070 (0.0059)	0.0135 (0.0094)	0.0036 (0.0076)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060 (0.0065)	0.0219*** (0.0089)	0.0197* (0.0099)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093 (0.0075)	0.0199 (0.0128)	-0.0009 (0.0117)
관측 수	11,373	6,828	5,829
R ²	0.2536	0.4603	0.2656

주: 1) 통제변수로 잠재경력연차더미, 성별더미, 4년제대학졸업더미, 최종학교졸업 연도의 3차식, 대학소재시도더미, 부 및 모의 교육수준더미, 14세 무렵 부모모종사상지위더미, 14세 무렵 경제적형편더미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위 1% 이상 및 하위 1% 이하의 임금 수준을 나타낸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정규직 더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정규직일 때 1, 비정규직일 때 0의 값을 취하는 이항 변수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임금근로자 스스로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여부를 자기 선언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측정 오차 발생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비정규직의 세부 유

형인 한시적 근로 및 시간제 근로, 그리고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의 각 유형을 한국노동패널조사 내 개별 문항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정규직, 전혀 해당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정의한 변수를 구축하여 사용한다.

〈표 3-2〉에 제시된 결과는, OLS를 통해 분석하는 경우 개인의 교육력 등 특성과 가족배경 관련 변수 및 연도 효과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편의를 최대한 통제한다 하더라도 졸업 당시 실업률이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3-2〉에서 종속변수가 취업자 더미인 경우 핵심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갖는 경우가 없고, 잠재 경력이 1~3년 차인 시기에는 오히려 약하게나마 정(+)의 관계가 포착된다. 종속변수가 월평균 임금이거나 정규직 더미일 때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며, 월평균 임금 분석에서는 심지어 통계적으로 강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잠재 경력 연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Choi et al.(2020)이 본 연구보다 다소 짧은 기간에 대해 본 연구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에 대해 분석했을 때, OLS 분석에서도 졸업 연도 실업률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것과 대비된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본 연구의 경우 1970년대 출생 표본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 몇 개 연도의 근방을 중심으로 선택편의의 영향이 훨씬 극명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OLS 분석 시 통제변수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선택 편의를 충분히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 전국 실업률이 확연히 높던 시기에 졸업을 미루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과, 졸업을 유예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린 이들 간의 내생적 선택에 따른 편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hoi et al.(2020)은 한국에서 전형적인 4년제 대졸 남성의 졸업 예측 연령이 26세, 전문대 졸업 남성은 24세, 4년제 대졸 여성은 23세, 전문대 졸업 여성은 21세인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구변수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

는 이렇게 설정된 Choi et al.(2020)의 도구변수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교육 수준 및 성별에 따라 산정된 졸업 예측 연도의 실업률 변수를 실제 졸업 연도의 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3〉은 도구변수를 사용한 2SLS 분석을 통해, 과거 X세대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던 연도에 직면한 전국 실업률이 그 후 이들의 취업 여부, 임금 수준 및 정규직 여부와 어떤 관계를 나타내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도구변수 분석이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석 방법론임을 감안하여, OLS 분석 시보다 통제변수 수를 줄인 다음의 식을 추정하였다.

$$Y_{i,t} = \alpha + \beta_e UR_c + f(c) + \lambda_t + \epsilon_{i,t}$$

위 식에서 $Y_{i,t}$ 는 연도 t 에서 개인 i 의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낸다. 대학 졸업 연도 c 의 전국 실업률 UR_c 는 개인의 졸업 연도 선택에 따른 내생변수로 간주되어 외생변수인 대학 졸업 예측 연도의 전국 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그 추정계수는 β_e 로서 OLS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재 경력 e 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f(c)$ 는 졸업 연도 c 의 3차식, λ_t 는 t 연도 더미를 나타낸다. 도구변수 추정이 갖는 내생성 편 의 제거 관련 장점을 반영하여, OLS 분석 시 통제하였던 $X_{i,t}$ 는 도구변수 추정 시 제외하였다. $\epsilon_{i,t}$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표 3-3〉이 보여주듯, 도구변수 추정을 통한 분석 시 앞서 OLS 분석과는 판이하게 다른 질적 결과가 도출된다. 즉 취업자 더미, 월평균 임금, 정규직 더미 등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 상당한 잠재 경력 연차에 이르기까지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가 취업자 더미일 때, 잠재 경력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졸업 당시 실업률의 부정적 영향이 차차 줄어들긴 하나 잠재 경력 연차가 16~18년일 때까지도 유의수준 1%에서 강하게 유의한 부(-)의 영향이 발견된다. 한편 잠재 경력 19년 차 이상에서는 1970년대 전반기 출생 표본의 영향력이 후반기 출생 표본을 압도할 우려가 있어 구간을 세분하여 보지는 않

〈표 3-3〉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 : 2S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취업자 더미	log (월평균실질 임금)	정규직 더미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4~3년차더미	-0.1031*** (0.0353)	-0.1670*** (0.0452)	-0.0898*** (0.0321)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948*** (0.0286)	-0.1207*** (0.0355)	-0.0948*** (0.0296)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942*** (0.0222)	-0.0831*** (0.0299)	-0.0538** (0.0230)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806*** (0.0185)	-0.0521* (0.0271)	-0.0347** (0.0168)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664*** (0.0167)	-0.0158 (0.0304)	-0.0156 (0.0136)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546*** (0.0172)	0.0120 (0.0371)	-0.0063 (0.0133)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210 (0.0252)	0.0467 (0.0564)	0.0105 (0.0190)
관측 수	13,750	8,273	6,975
R ²	-	0.1831	0.2109
Prob>x ²	0.0000	0.0000	0.0000

주 :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 연도의 3차식 및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왔다. 다만 19년 차 이상의 초반기까지도 취업자 여부에 대한 졸업 당시 실업률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가 월평균 임금인 경우에는 졸업 당시 실업률의 부정적 영향이 잠재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줄어들긴 하나 7~9년 차까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속변수가 정규직 더미인 경우, 역시 졸업 연도 실업률의 부정적 영향이 잠재 경력이 늘면서 대체로 감소하나 10~12년 차까지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표 3-3〉에 제시된 도구변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표 3-4〉에 정리되어 있듯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1%p만큼 상승할 때 잠재 경력 1~3년 차 기준으로 취업자 확률은 10.31%p만큼 하락하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0% 낮아진다. 더불어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확률도 8.98%p 하락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즉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유의성을 따지더라도 대학 졸업 당시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가 갖는 부정적 영향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핵심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지막 연차, 즉 취업자 더미의 경우 잠재 경력 16~18년 차, 월평균 임금 및 정규직 더미의 경우 10~12년 차 기준으로 산정하면,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1%p 상승 시 취업자 확률은 5.46%p, 월평균 임금은 5.21%, 정규직 확률은 3.47%p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노동시장 진입기에 처한 불리한 여건의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부정적 여파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4〉 대학 졸업 연도 실업률 1%p 상승 시 노동시장 성과 하락 정도

변 수	대학 졸업 연도 실업률 1%p 상승 시 감소분	
	잠재 경력 1~3년 차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지막 잠재 경력 연차
취업자 확률 (%p)	10.31	5.46
월평균 임금 (%)	16.70	5.21
정규직 확률 (%p)	8.98	3.47

주: 〈표 3-3〉에 제시된 도구변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위의 도구변수 분석 결과는 앞서 OLS 분석 결과가 선택편의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졸업을 유예하지 않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이 졸업을 유예한 이들 대비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의 개인적 특성이 우수했다고 하면, 내생성 편의를 제거한 도구변수 분석 결과와는 달리 실제 졸업 연도 실업률을 기준으로 한 OLS 분석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1970년대 출생자에게 분석 대상 표본을 국한한 특성상, 이러한 선택편의의 영향이 Choi et al.(2020)의 선행연구 대비 상대적으로 큰 관계로 OLS 분석과 도구변수 분석 간 결과의 질적 차이가 크게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갖는 부정적 영향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Von Wachter(2020)의 해당 주제에 대한 서베이 논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력개발 관련 두 가지 주요 모형인 인적자본 축적(human capital accumulation) 및 일자리 탐색(job search) 모형을 통해 다수 연구에서 관측된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의 지속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형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일정 방식으로 결합해야만 설명이 가능함을 Von Wachter(2020)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Von Wachter(2020)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갖는 지속적 영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비경제적인 메커니즘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수 선행연구에서 보듯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 상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이것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탐색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Von Wachter(2020)는 설명한다. 더불어 Von Wachter(2020)는 동질혼 assortative mating 경향으로 인한 가족 내 자원 감소 및 네트워크 악화, 더불어 건강관리 노력 약화 및 개인 의식 차원의 변화 등도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원인일 수 있다고 기술한다.

실제 Choi et al.(2020)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혼인상태, 출산, 자산형성 등에 대해 갖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지속됨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이 Choi et al.(2020) 및 본 연구에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가 유의미하게 장기간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4장에 제

시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개인의 의식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일부 발견됨을 미리 밝힌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X세대에 속하는 1970년대 출생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졸업 당시 실업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국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X세대라는 단일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분석 표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세대 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970년대 출생자의 과거 노동시장 이행 양상 분석을 통해 현재 청년세대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전 세대 고등교육 이수자에게 초점을 맞춘 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성성 편의를 제거한 도구변수 추정 결과,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향후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지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Choi et al.(2020)의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장의 분석에서는 OLS 추정 결과와 도구변수 추정 결과 간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상당히 넓은 연령대를 분석 표본에 포함한 Choi et al.(2020)과는 달리, 본 장에서는 X세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졸업 연도 선택의 내생성에 따른 편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가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이 향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목

적을 두진 않는다. 다만 Von Wachter(2020), Choi et al.(2020) 등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제 4 장

X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기 여건이 향후 개인 의식에 미친 영향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25차에 걸쳐 실시한 가구 및 개인 단위 패널 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X세대로 지칭되는 1970년대 출생 세대와 그 이전 1960년대생 및 이후 1980년대생 간 의식의 추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즉 1998년 이후 비교 대상 3개 세대 간에 의식의 궤적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를 우선 살펴본다.

그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대상인 1970년대생 안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와 향후 의식의 궤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즉 같은 X세대 내에서도 졸업 연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향후 이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로 간주 가능한 관계를 도출할 것이다.

제1절 X세대와 인접 세대 간 의식의 궤적 비교

1. 삶에 대한 만족도의 추이: 세대 간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본조사 중 조사 대상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1998년 1차 조사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 25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설문된 문항은 “그렇다면, _____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이다.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은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등 총 5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 설문에 대한 개인의 답변 내역을 바탕으로 1~5점 척도 삶의 만족도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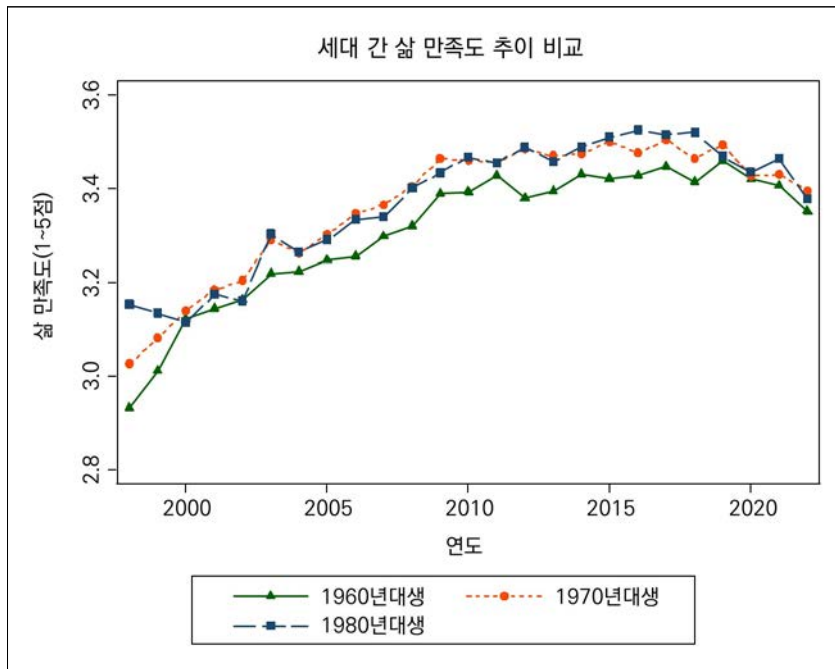
한편 상대적으로 최근 연도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본조사 내에서 가용한 문항으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0”부터 최선의 상태를 의미하는 “10”까지 총 11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11단계 척도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문항의 경우, 2015년 18차 조사 시 “삶의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의 문항으로 포함된 후 본조사 문항으로 들어온 것은 2017년 20차 조사 이후로서,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답변 내역을 긴 시계열에 걸쳐 비교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우선 [그림 4-1]은 1998년 1차 조사 이후 2022년 25차 조사까지의 자료에 모두 포함된 1~5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X세대 및 그 인접 세대의 삶의 만족도 추이를 비교한다. 다만 원 문항 보기에서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숫자가 높아지던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스케일을 변환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⁶⁾

1998년 이후 비교 대상 3개 세대 중 1960년대생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었고,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면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왔음을 [그림 4-1]은 보여준다. 다만 최근 연도로 올수록 3개 세대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분석 대상 25개 연도에 걸친 삶의 만족도 평균은 1960년대생이 3.31/5점, 1970년대생이 3.36/5점, 1980년대생이 3.37/5점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이 비교(1~5점 척도, 199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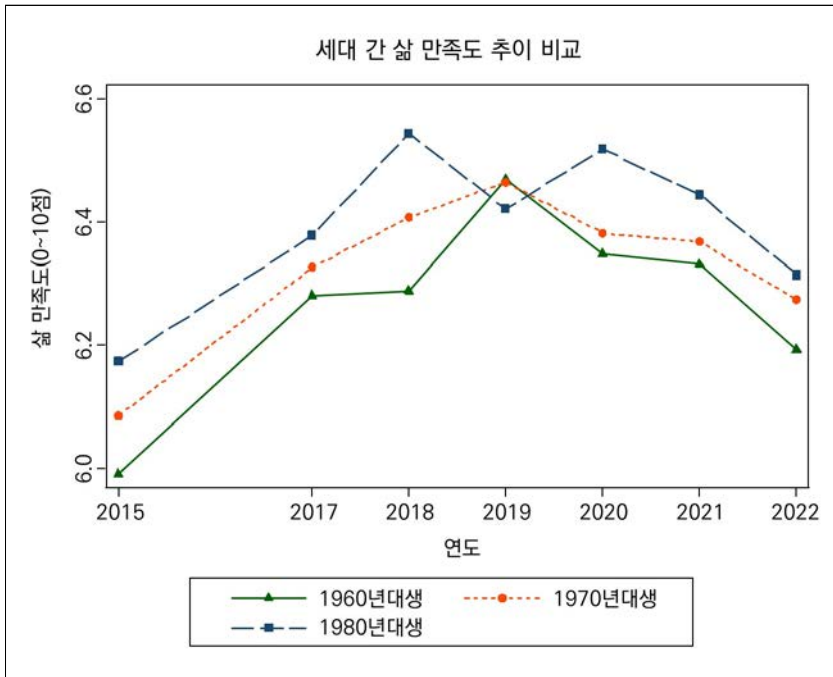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6)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 이후 2009년과 2018년에 각각 표본 가구 추가를 거치면서 98표본,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 등 사실상 3개의 별도 패널이 존재한다. [그림 4-1]은 활용하는 문항 특성상 원 표본인 98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이 국한되어, 분석 대상 기간 초기에는 1980년대 출생 가구원 중 15세 미만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그림 4-2]는 2015년 부가조사 문항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본조사 문항에 포함된 11단계 척도 응답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의 추이를 세대 간에 비교한 것이다.⁷⁾ [그림 4-2]에서 비교적 최근 연도에 대해 11단계 척도로 산정된 삶의 만족도 추이를 3개 세대 간에 비교할 때, 대개 연령대가 낮은 세대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추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대상 7개 연도 평균을 산정하면 1960년대생은 6.27/10점, 1970년대생은 6.33/10점, 1980년대생은 6.40/10점이다.

[그림 4-2]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추이 비교(0~10점 척도, 2015년 및 2017~2022년)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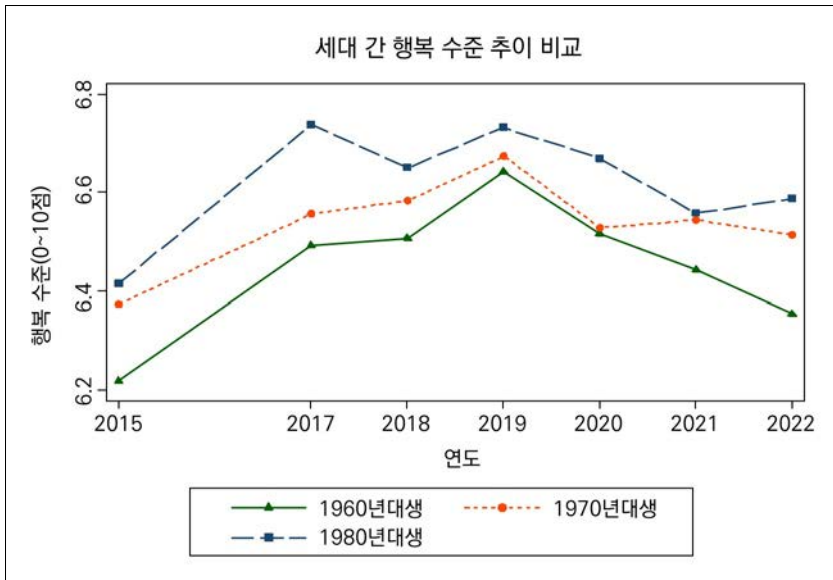
7)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내에 존재하는 98표본,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 등 3개의 패널 중 [그림 4-2]는 09통합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2. 행복 수준의 추이 : 세대 간 비교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 출생 세대와 그 인접 세대가 느끼는 행복 수준의 추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개인의 행복 수준 측정 문항으로 유일하게 가용한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0. 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10. 매우 행복하다”에 이르기까지 11단계 척도로 이루어진다. 다만 해당 문항은 2015년 18차 조사에서 “삶의 인식” 부가조사 문항으로 포함된 후 본조사 문항으로는 2017년 20차 조사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는 달리 행복 수준의 경우 1차 조사부터 오랜 기간에 걸친 세대별 시계열 추이를 관측할 수 있는 문항이 한국노동패널조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3]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행복 수준 추이 비교(0~10점 척도, 2015년 및 2017~2022년)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2015년 이후 3개 비교 대상 세대 간 행복 수준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⁸⁾ [그림 4-3]에 따르면 앞서 2015년 이후 세대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와 유사하게, 행복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연령대가 낮은 세대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양상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생의 분석 대상 7개 연도 행복 수준 평균은 6.45/10점, 1970년대생은 6.54/10점, 1980년대생은 6.62/10점이다.

3.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의 추이 : 세대 간 비교

이제 1970년대 출생 세대와 그 인접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의 추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사용하는 자료는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을 설문한 문항으로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 보기는 상, 중, 하 내에서 각각 상과 하를 나누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1. 상 중 상”, “2. 상 중 하”, “3. 중 중 상”, “4. 중 중 하”, “5. 하 중 상”, “6. 하 중 하” 등 총 6단계 척도로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해당 문항이 현재의 6단계 척도 답변 형태로 본조사 문항에 포함된 것은 2005년 8차 조사 이후로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초기에는 해당 문항이 아예 없거나 2005년 이후 조사와 연결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로만 포함되어 있다.⁹⁾

[그림 4-4]는 2005년 8차 조사부터 2022년 25차 조사까지의 자료에 포함된 1~6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X세대 및 그 인접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다만 원 문항 보기에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숫자가 높아지던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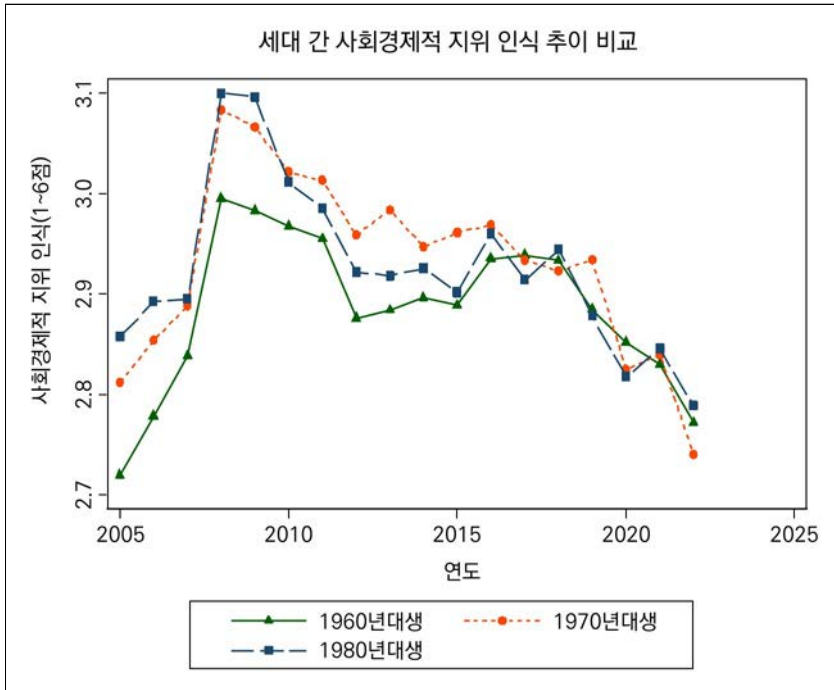
8) [그림 4-3]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내 98표본,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 중 09통합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9) 예를 들어, 1999년 2차 조사에서는 응답 항목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2000년 3차 및 2002년 5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나누어 설문하면서 각각 5단계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높아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스케일을 변환하였다.¹⁰⁾

[그림 4-4]는 2016년까지는 1960년대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3개 세대 중 가장 낮다가, 그 이후 타 세대와 앞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60년대생의 분석 대상 18개 연도 평균은 2.88/6점, 1970년대생은 2.93/6점, 1980년대생은 2.93/6점으로 나타난다. 다만 1980년대생의 경우, 비교적 최근 연도까지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함께 동거하는 부모의 지위를 자신의 지위와 동일시하여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4-4]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추이 비교(1~6점 척도, 2005~2022년)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10) [그림 4-4]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내 3개 표본 중 원 표본인 98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4. 정치적 성향의 추이 : 세대 간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과는 달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X세대 및 그 인접 세대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듯 한국노동패널 내에서 가용한 일부 문항에 더해, 그 외 패널 조사 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1차 Wave의 경우 응답하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파악이 가능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진술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 아래 세부 문항으로서 소득격차, 공기업 민영화, 개인과 정부 간 책임 소재, 경쟁 등에 대한 인식을 1점부터 10점 사이 척도로 답하게 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론할 근거를 제공하는 문항이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자료에 존재한다. 다만 2013년 10차 조사 이후로만 해당 문항이 가용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대상이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목적인 세대 간 비교를 위해 적합한 자료는 아니다.¹¹⁾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일부 문항을 활용할 것이다. 이때 이들 문항들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다방면에서 완전하게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패널 조사는 아니나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문항 활용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 응답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11) 김세움(2021)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Wave의 2019년 13차 추적조사에 응답한 3,150명의 연령대가 29세와 37세 사이임을 언급하고 있다. 즉,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더라도 응답자의 세대는 대부분 1980년대생으로 구성된다.

수 있는 것으로서 “____님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를 들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 보기는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등 5개 선택지로 제시되는데, “(5)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4단계 척도로 간주된다.

해당 문항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답할 것이고, 진보일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위 상승이 힘들다고 답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문항은 2005년 8차 조사 이후 지금까지 가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 문항의 1~4점 스케일을 뒤집어, 보수 성향이 높은, 즉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더욱 수긍하는 답변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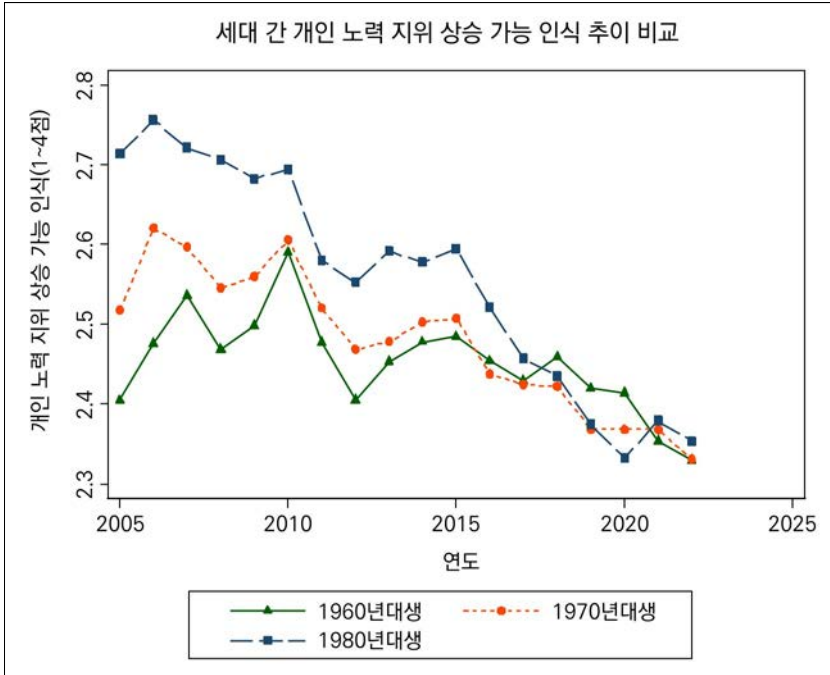
역시 한국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 “아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____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아래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및 그 세부 문항으로서 “(1)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 “(3)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된다”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문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노조의 역할에 긍정적인 진보 성향의 답변일수록 1~5점 척도에서 1점에 가깝고, 노조의 역할에 회의적인 보수 성향의 응답일수록 5점에 가깝다. 해당 문항은 2006년 9차 조사 이후 지금까지 가용하다.

[그림 4-5]는 개인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인식이 2005년 이후 나타내는 추이를 보여준다.¹²⁾ 비교 대상 3개 세대 중 2017년까지 1980년대생의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2015년까지 1970년대생의 동의 정도가 1980년대생보다 더 높았으나,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 3개 세대가

12) [그림 4-5]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내 표본 중 원 표본인 98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그림 4-5]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비교(1~4점 척도, 200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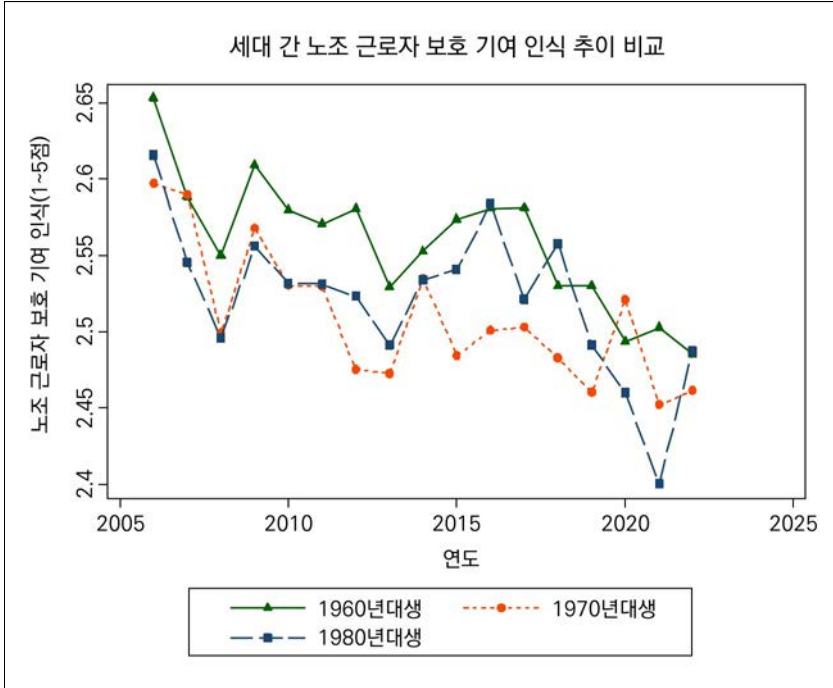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서로 엇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교 대상 18개 연도 평균은 1960년대생이 2.45/4점, 1970년대생이 2.48/4점, 1980년대생의 경우 2.56/4점이다.

[그림 4-6]~[그림 4-8]은 비교 대상 3개 세대의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인식 관련 답변 내역의 추이를 보여준다.¹³⁾ 먼저 [그림 4-6]은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세대 간에 비교하여 나타낸다. 1~5점 척도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내는데,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은 연도별로 서로 엇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장

13) [그림 4-6]~[그림 4-8]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원 표본인 98표본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그림 4-6]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의 근로자 보호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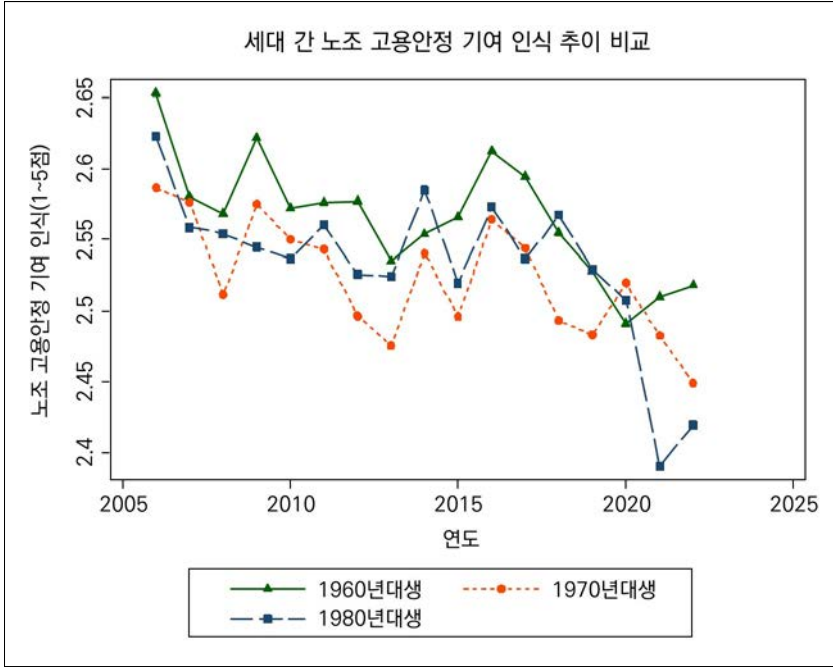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높은 연령대인 1960년대생의 경우 대체로 노조의 근로자 보호 기여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석 대상 17개 연도 평균을 세대별로 산정해 보면, 1960년대생은 2.56/5점, 1970년대생은 2.51/5점, 1980년대생은 2.52/5점을 나타낸다.

이어서 [그림 4-7]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가장 높은 연령대인 1960년대생의 노조 고용안정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박하고,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은 연도별로 엇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이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생의 노조 고용안정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타 세대 대비 크게 높아진(즉 5점 척도 점수가 낮아진) 것이 눈에 띈다. 분석 대상 17개 연도에 대해 1960년대생의 평균은 2.57/5점, 1970년대생은

[그림 4-7]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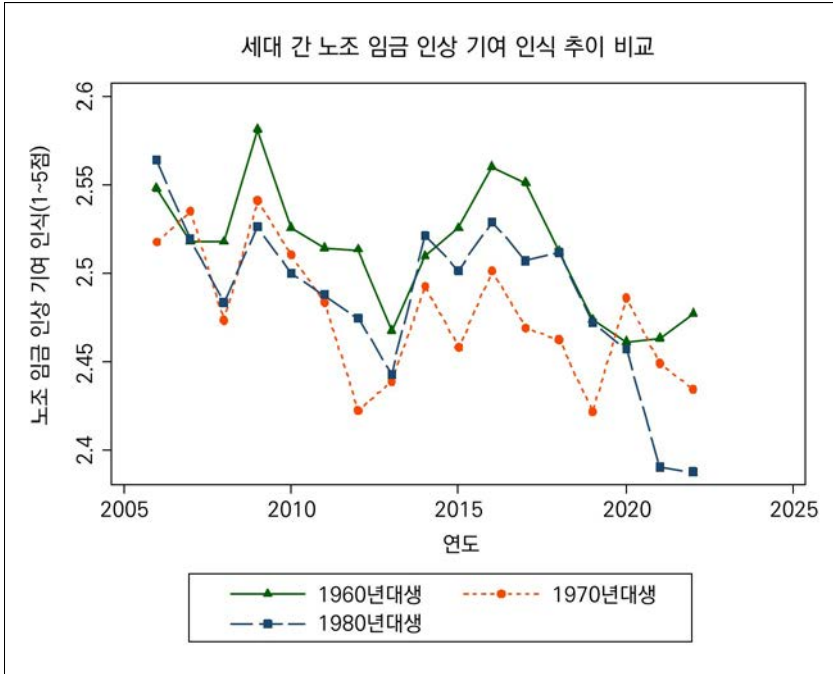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52/5점, 1980년대생은 2.53/5점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림 4-8]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임금 인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세대 간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역시 1960년대생의 평가가 타 세대 대비 대체로 박한 양상을 보이고,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간에 엇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도 [그림 4-7]에서와 유사하다. 다만 역시 최근 2년간 1980년대생의 노조 임금 인상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타 세대 대비 확연히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분석 대상 17개 연도에 대해 세대별 평균은 1960년대생이 2.51/5점, 1970년대생이 2.48/5점, 1980년대생은 2.49/5점이다.

[그림 4-8]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노동조합 임금 인상 기여에 대한 인식 추이 비교(1~5점 척도, 2006~2022년)



주: 각 세대의 연도별 모수 추정을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나.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활용 비교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 시작되었으며,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2017년 이후 원자료가 가용하다. 조사 대상 및 인원은 전국 표본가구의 19세 이상 가구원 8,000명가량이다. 해당 자료의 장점은 조사 대상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스스로 직접 선언하게 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설명할 이유로 인해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3개 비교 대상 세대 간 분석은 2019년 1개 연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019년도 조사에 포함된 “III. 정치 참여 부문: 27.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매우 보수적”, “(2) 다소 보수적”, “(3) 중도

적”, “(4) 다소 진보적”, “(5) 매우 진보적” 등 5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문항의 응답 내역을 세대 간 이념 성향 비교를 위해 직접 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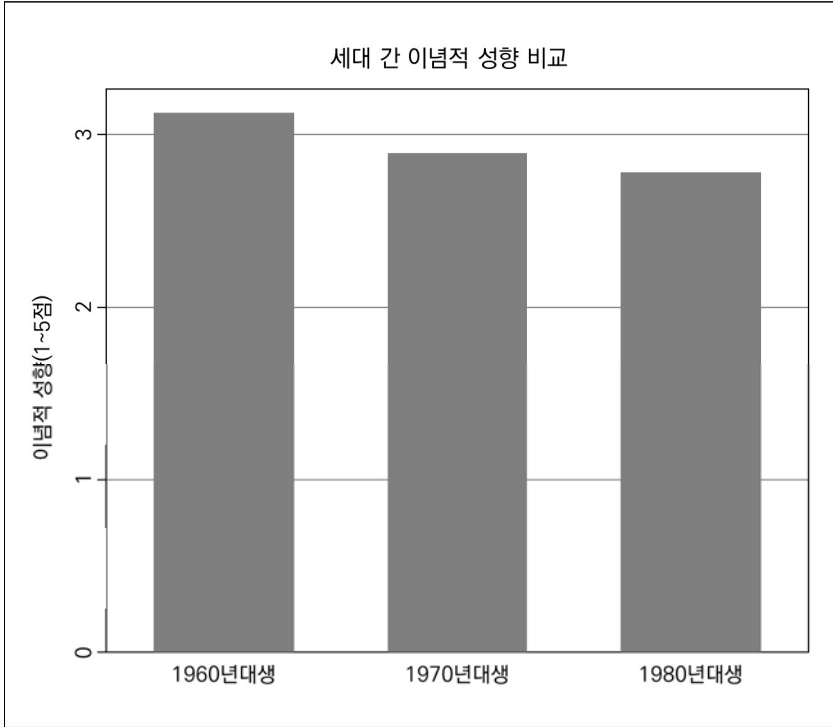
더불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보완적으로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2019년도 조사에서 “1.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부문” 중 “12. 귀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로부터 “(5) 북한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니다”를 거쳐 “(10)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다”에 이르기까지 11단계 척도로 답변하도록 한 문항, “13.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0) 성장이 더 중요하다”에서 “(5) 성장과 분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를 거쳐 “(10) 분배가 더 중요하다” 등 11단계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 그리고 “14.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0)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부터 “(5)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를 거쳐 “(10)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중 하나를 택하게 한 문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에조차 응답자의 출생연도 혹은 연령이 1년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10세 안팎으로 나뉜 연령대 변수만 가용하다는 것이다. 즉 2019년도 원자료를 예로 들면 응답자의 연령대가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69세”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연도는 2017년도 이후 중 2019년이 유일하다. 즉 2019년에 1960년대생은 모두가 50대라고 간주할 수 있고, 1970년대생은 모두가 40대, 1980년대생은 모두 30대로 볼 수 있다.

[그림 4-9]는 2019년에 이념적 성향을 5점 척도로 스스로 응답한 내역의 평균을 3개 세대 간에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때 보수적 성향일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원 문항의 답변 스케일을 변환하였다. 가장 연령대가 높은 1960년대생의 평균 이념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3.13/5점), 1980년대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 성향을 띤다(2.78/5점). 1970년대생의 이념적 성향은 두 인접 세대의 중간을 나타낸다(2.90/5점).

[그림 4-9]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이념적 성향 비교(1~5점 척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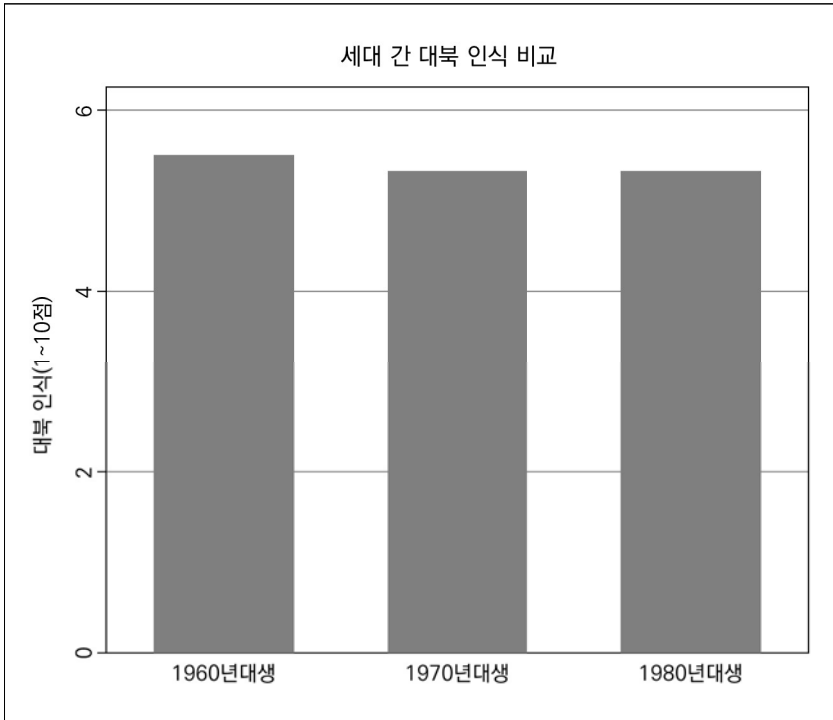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보수 추정을 위해 보수 추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10]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11단계 척도로 응답한 내역을 바탕으로 각 세대의 평균 정치적 성향을 가늠한 결과를 보여준다. 보수 성향의 답변, 즉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답변의 숫자가 커지도록 원 문항의 스케일을 변환하였다. 역시 연령대가 가장 높은 1960년대생의 대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 색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5.51/10점). 1970년대생(5.33/10점)과 1980년대생(5.33/10점)은 1960년대생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 성향을 드러내면서 서로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1]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11단계 척도로 응답한 내역을 바탕으로 세대 간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가늠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즉 보수 성향 답변의

[그림 4-10]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비교(0~10점 척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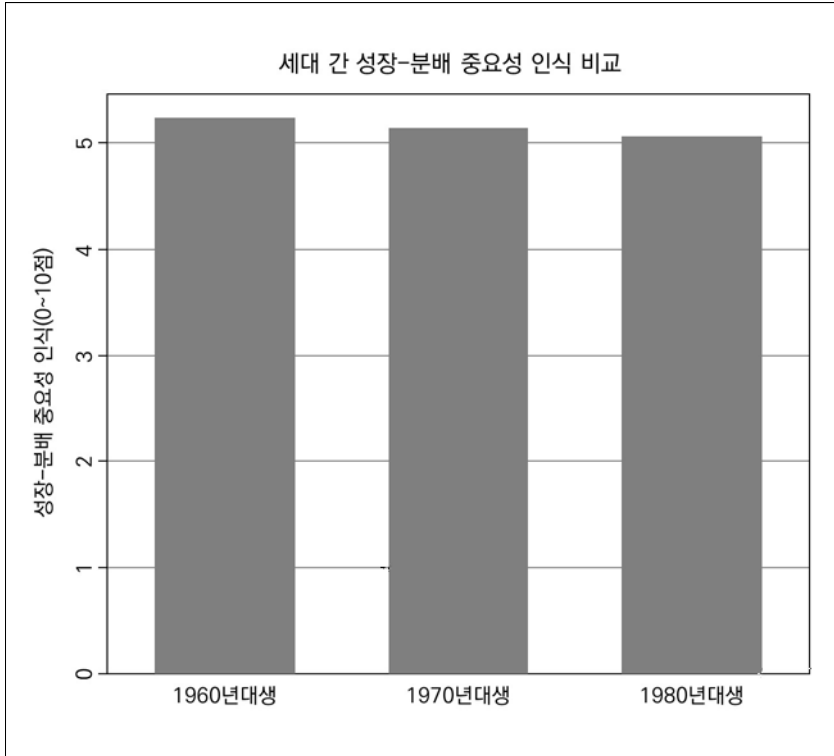


주: 각 세대의 모수 추정을 위해 모수 추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숫자가 커지도록 원 문항의 스케일을 변환하였다. 앞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생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5.24/10점) 가장 연령대가 낮은 1980년대생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며(5.06/10점), 1970년대생은 두 인접 세대의 중간 성향을 나타낸다.(5.15/10점)

마지막으로 [그림 4-12]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인식 관련 11개 척도 답변 내역을 활용하여 세대 간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진보,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면 보수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림 4-12]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앞서 [그림 4-9]-[그림 4-11]에서 살펴본 세대 간 성향 차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위의 3개 문항에서 가장 보수적 성향을 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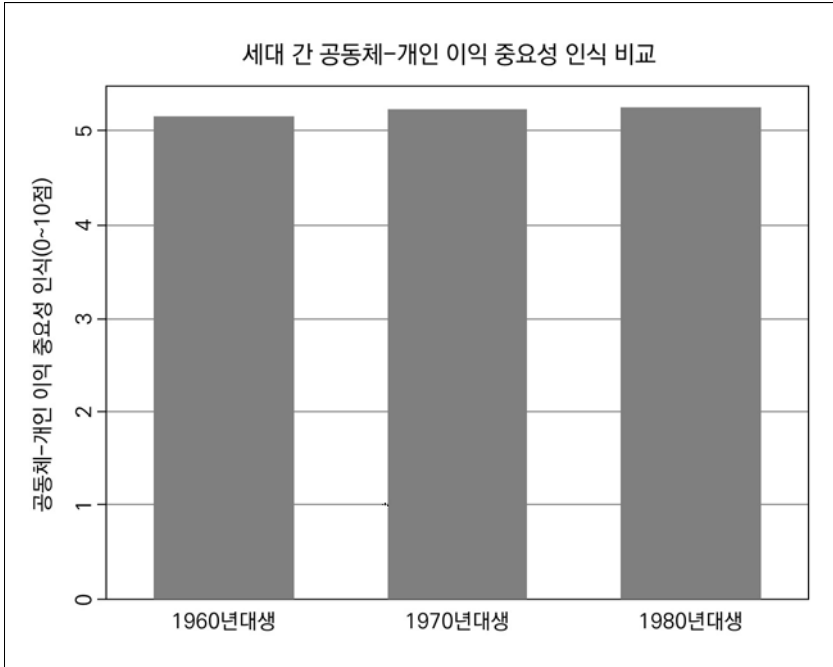
[그림 4-11]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성장-분배 중요성 인식 비교(0~10점 척도, 2019년)



주: 각 세대의 모수 추정을 위해 모수 추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낸 1960년대생이 공동체-개인 이익 중요성 인식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양상을 보인다(5.15/10점). 한편 위 3개 문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난 1980년대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상정 가능한 성향을 드러낸다(5.25/10점). 1970년대생은 두 인접 세대의 중간 성향을 보인다(5.23/10점).

[그림 4-12] 1970년대생과 그 인접 세대의 공동체-개인 이익 중요성 인식 비교(0~10점 척도, 2019년)



주: 각 세대의 모수 추정을 위해 모수 추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의식에 미친 영향: X세대 내 분석

이제 X세대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정치적 성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졸업 연도의 실업률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과 향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다수 존재하나, 본 절의 분석처럼 졸업 당시 실업률이 향후 개인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

다.¹⁴⁾

본 절의 분석을 위해 사용할 자료와 방법론은 앞서 3장에서 대학 졸업 연도 실업률과 향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즉 본 장에서 수행되는, 1970년대 출생자가 경험한 노동시장 진입기의 실업률과 향후 개인의 의식 간 관계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공히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더불어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게시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 졸업 연도별 전국 실업률 변수를 구축한다.

분석 대상 표본 역시 3장에서와 동일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 내 3개의 패널 중 20대 시절 이후 X세대 개인의 의식 추이를 분석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98통합표본을 사용한다.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력 기준 출생연월이 1970년 3월부터 1980년 2월 사이인 이들을 분석 대상 코호트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본 절에서도 국내 소재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들만 분석 대상 표본에 포함한다. 대학 졸업 연령 역시 3장에서처럼 뒤늦은 대학 진학 사례를 제외하기 위해 20세부터 32세 사이에 졸업한 이들로 제한하였다.

더불어 종속변수의 변화를 제외하고 3장에서와 동일한 모형을 OLS 및 도구변수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다.¹⁵⁾ 다만 3장에서 보았듯 선택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내생변수인 졸업 연도 실업률에 대해 졸업 예측 연도 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2SLS 추정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

14) 다만 관련된 연구로서 Giuliano and Spilimbergo(2014) 및 Maclean and Hill (2015)을 들 수 있다. Giuliano and Spilimbergo(2014)는 사회심리학 문헌에서 개인의 의식형성에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18~25세 연령대에 겪은 경기후퇴가 개인의 정부 개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젊은 시절 경기후퇴를 경험한 이들의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공화당 대비 민주당 출신 대선 후보에 투표할 확률 역시 높아짐을 Giuliano and Spilimbergo(2014)는 보이고 있다. 한편 Maclean and Hill(2015)은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다니던 학교를 중퇴한 이들의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무르게 됨을 보였다.

15) 물론 OLS 대신 개인의 의식 관련 문항의 답변 보기 구조를 활용하여 위계 로짓(ordered logit) 혹은 위계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도구변수 추정의 편의를 위해 OLS 추정을 실시한다.

〈표 4-1〉은 본 절의 도구변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 중 본 절에서 새롭게 추가된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5점 척도 변수의 경우 증릿값은 4점이나 산술평균은 3.5점가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이들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0~10점 척도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해서도 증릿값은 7점이나 산술평균은 이보다 다소 낮은 6.6점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0~10점 척도 행복 수준 변수의 증릿값 역시 7점이나, 산술평균은 이보다 다소 낮은 6.8점 안팎이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6점 척도로 답변한 변수의 증릿값은 3점인데, 산술평균은 3.1점 남짓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 수준 관련 변수와는 달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다고 답변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

〈표 4-1〉 기초통계

변 수	산술 평균	증릿값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 수
삶 만족도 (1~5점)	3.51	4	0.57	1	5	13,688
삶 만족도 (0~10점)	6.58	7	1.36	1	10	4,787
행복수준 (0~10점)	6.81	7	1.33	0	10	4,787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1~6점)	3.11	3	0.73	1	6	12,309
개인노력 지위상승 가능인식(1~4점)	2.53	3	0.62	1	4	11,527
노조 근로자보호 도움인식(1~5점)	2.48	2	0.67	1	5	10,996
노조 고용안정 도움인식(1~5점)	2.49	2	0.67	1	5	10,996
노조 임금인상 도움인식(1~5점)	2.45	2	0.67	1	5	10,99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도의 산술평균은 1~4점 척도에 2.53점으로 증릿값 3점보다 낮다. 이는 개인 노력에 의한 지위 상승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보호, 고용안정, 임금 인상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3개 변수 모두 1~5점 척도에서 증릿값은 2점이나 산술평균은 2.5점에 근접한다. 이는 노조의 기여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이들이 상당 수 존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¹⁶⁾

1.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 X세대 내 분석

〈표 4-2〉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설문된 문항인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총 5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원 문항 보기의 스케일을 변환하여 1~5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표 4-2〉는 이와 함께 앞 절에서 소개된 바 있는, 2015년 부가조사 문항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본조사 문항에 포함된 삶의 만족도 11단계 척도 응답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표 4-2〉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향후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를 1~5점 척도로 보든 0~10점 척도로 보든 졸업 당시 실업률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그 절댓값은 잠재 경력이 쌓임에 따라 점차 줄어들기는 한다. 그러나 1~5점 척도 변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할 때 잠재 경력 1~3년 차에서 약하지만 유의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전혀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⁷⁾

16) 노조 기여도 변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노조 기여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낮을수록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17) 종속변수가 0~10점 척도 삶의 만족도인 경우, 해당 문항이 한국노동패널 18차 부가조사부터 가용한 관계로 잠재 경력 1~3년 차일 때의 영향은 추정 불가능하다.

〈표 4-2〉 졸업 연도 실업률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 2S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삶 만족도(1~5점)	삶 만족도(0~10점)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0.0403* (0.0239)	-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285 (0.0229)	-0.3281 (0.2341)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130 (0.0171)	-0.2601 (0.1981)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128 (0.0163)	-0.1894 (0.1407)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118 (0.0148)	-0.1376 (0.1055)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051 (0.0140)	-0.0671 (0.0748)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003 (0.0149)	-0.0065 (0.0497)
관측 수	13,688	4,787
R ²	0.0360	0.0105
Prob>χ ²	0.0000	0.0000

주 :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연도의 3차식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제3장에서 종속변수가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등이었을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은 어려움이 향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렇다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이와 유사한 궤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진 불리한 여건에 대해 각 개인이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의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자신과 직접 관련된 피드백이 예상되는 경우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기

대를 갖는 방식으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향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 데 따른 실망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다(Shepperd et al., 1996; Van Dijk et al., 2003).¹⁸⁾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본인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부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즉 사회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개인 입장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 수준을 평상시에도 가급적 높지 않게 유지할 유인이 있다. 더군다나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리한 여건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더욱욱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행복 수준 : X세대 내 분석

다음으로 같은 1970년대생 내에서도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와 향후 행복 수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즉 동일 세대 내에서도 졸업 연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향후 이들의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제3장에서처럼 도구변수 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엄밀한 관계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개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유일한 문항인 11단계 척도 문항에 대한 답변 내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해당 문항은 2015년 18차 부가조사 문항으로 포함된 후 본조사 문항으로는 2017년 20차 조사 이후에만 가용하다. 따라서 행복 수준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가용한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4-3>에 따르면, 졸업 당시 실업률이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행복

18) Shepperd, Ouellette and Fernandez(1996)가 학부 2학년, 3학년 및 4학년 학생들이 졸업 후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의 본인 급여 수준을 예측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졸업이 임박함에 따라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Van Dijk, Zeelenberg and van der Pligt(2003)가 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심리학과 직접 관련된 커리어 및 관련 없는 분야 커리어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당장 혹은 2주 후에 공개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직접 관련된 커리어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즉시 공개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 이후로만 가용한 종속변수 특성상 잠재 경력 1~3년 차의 영향은 추정 불가능하고, 4~6년 차에도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적은 관측 수로 인한 불규칙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7~9년 차 이후로는 졸업 당시 실업률의 부정적 영향이 잠재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긴 하나,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처럼 행복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유의

〈표 4-3〉 졸업 연도 실업률과 행복 수준 간 관계 : 2SLS 분석

변수	종속변수
	행복수준(0~10점)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241 (0.2281)
×잠재경력7~9년차더미	-0.2518 (0.2367)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1406 (0.1873)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1426 (0.1443)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727 (0.1007)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092 (0.0632)
관측 수	4,787
R2	0.0029
Prob> χ^2	0.0000

주: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연도의 3차식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와 유사하게, 개인의 행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 낮아지는 방식으로 적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 X세대 내 분석

이제 동일 세대인 1970년대생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와

〈표 4-4〉 졸업 연도 실업률과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간 관계 : 2S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사회경제적지위인식(1~6점)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0.0456 (0.0353)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409 (0.0347)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355 (0.0269)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318 (0.0245)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192 (0.0216)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116 (0.0208)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096 (0.0263)
관측 수	12,309
R ²	0.0425
Prob>χ ²	0.0000

주 :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연도의 3차식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향후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엄밀한 분석을 실시한다.

〈표 4-4〉는 종속변수로서 한국노동패널 8차 조사 이후 총 6단계 척도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을 설문한 문항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원 문항 보기의 스케일을 변환하였다.

〈표 4-4〉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졸업 당시 실업률이 시차를 두고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핵심 설명변수의 모든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고 잠재 경력 연차가 높아질수록 절댓값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긴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역시,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기대 수준 또한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 직면할 때 낮아지는 방식으로 적응이 일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4. 노동시장 진입기 구직 난이도와 정치적 성향 : X세대 내 분석

이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X세대 내에서 이들의 향후 정치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다만 본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의 부재로 인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련 문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가용하다. 즉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본 종합적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그 일부 측면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4-5〉는 한국노동패널 8차 조사 이후 가용한,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설문한 문항에 대해 4단계 척도로 답변한 내역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성에 동의하는 보수 성향의 답변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원 문항의 스케일을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4-5〉는 본인의 기대치를 낮추어 적응 가능한 만족도 및 본인 지위에

〈표 4-5〉 졸업 연도 실업률과 개인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 가능 인식 간 관계 : 2S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개인노력지위상승가능인식(1~4점)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0.0719 ^{***} (0.0280)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461 ^{**} (0.0220)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366 ^{**} (0.0168)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348 ^{**} (0.0170)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327 ^{**} (0.0141)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296 ^{***} (0.0106)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235 ^{**} (0.0111)
관측 수	11,527
R ²	0.0166
Prob>χ ²	0.0000

주 :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연도의 3차식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졸업 당시 불리한 여건에 처했던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들일수록 개인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 잠재 경력 1~3년 차부터 19년 차 이상에 이르기까지 음(-)의 부호를 갖는 추정계수의 절댓값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나, 19년 차 이상까지도 그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1%p 상승하면 개인 노력에 의한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가 1~4점 척도 기준 잠재

경력 1~3년 차일 때 0.07점, 19년 차 이상에서는 0.02점 하락한다. 이러한 하락 폭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3장에서 살펴본 졸업 당시 실업률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개인 노력에 의한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사회경제적 의미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위의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므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약간이나마 진보적으로 바뀌고, 이러한 정치 성향의 변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⁹⁾ 다만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견해의 총합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 성향이 다른 쪽보다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우월하다 말할 수 없다. 즉 특정 정치 성향 유권자를 오랜 기간 늘려서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기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게 자신들의 진영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표 4-6>은 한국노동패널 9차 조사 이후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해 설문한 문항에 1~5점 척도로 답변한 내역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문항은 노조의 기여도를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근로자 고용안정, 근로자 임금인상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문한다. 1점에 가까울수록 노조의 기여도에 긍정적인 진보 성향의 답변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노조의 역할에 회의적인 보수 성향의 답변으로 볼 수 있다.

<표 4-6>은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높은 개인이라고 해서 향후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특정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기울지 않음을 보

19) 최슬기 외(2019)가 여섯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간 및 연령효과와 구분되는 세대효과가 별도로 존재함이 확인되고 1965~1984년생이 비보수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그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정치적 성향 관련 문항이 다양하지 않은 관계로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질의 분석 결과는 1970년대 출생 세대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리한 여건을 경험한 후 개인 노력에 의한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 것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6〉 졸업 연도 실업률과 노동조합 기여도 인식 간 관계 : 2SLS 분석

변 수	종속변수		
	노조근로자보호 도움(1~5점)	노조고용안정 도움(1~5점)	노조임금인상 도움(1~5점)
졸업연도전국실업률 ×잠재경력1~3년차더미	0.0541 (0.0628)	0.0498 (0.0511)	-0.0017 (0.0547)
×잠재경력4~6년차더미	0.0268 (0.0484)	0.0439 (0.0382)	0.0196 (0.0458)
×잠재경력7~9년차더미	0.0286 (0.0302)	0.0289 (0.0240)	0.0136 (0.0316)
×잠재경력10~12년차더미	0.0295 (0.0250)	0.0354* (0.0191)	0.0215 (0.0257)
×잠재경력13~15년차더미	0.0223 (0.0203)	0.0313* (0.0172)	0.0147 (0.0255)
×잠재경력16~18년차더미	0.0032 (0.0174)	0.0121 (0.0157)	0.0012 (0.0214)
×잠재경력19년차이상더미	-0.0056 (0.0122)	-0.0001 (0.0132)	-0.0046 (0.0179)
관측 수	10,996	10,996	10,998
R ²	0.0060	0.0042	0.0042
Prob > χ^2	0.0000	0.0000	0.0000

주 : 1) 내생변수인 졸업연도 및 졸업연도전국실업률에 대한 도구변수로 졸업예측연도 및 졸업예측연도전국실업률을 사용하였음. 졸업연도의 3차식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괄호 안 숫자는 대학 졸업 연도 수준에서의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냄.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여준다. 특히 종속변수가 노조의 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에 대한 기여도 인식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긴 하나 잠재 경력 기준 상당한 연차 동안 오히려 진입기 실업률이 높을수록 노조 역할에 회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한편 잠재 경력이 쌓일수록 노동시장 진입기 실업률이 높았던 데 따른 노조 역할에 대한 회의적 성향이 대체로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개인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 분석과 상반된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했던 이들의 경우, 오

랜 기간 취업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임금 수준 역시 낮았음을 3장의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즉 노동조합에 본인이 가입하여 수혜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노조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후 2022년까지 25차에 걸쳐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X세대로 지칭되는 1970년대 출생 세대와 그 이전 1960년대생 및 이후 1980년대생 간 의식의 추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대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다른 인접 세대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개인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 및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1970년대생이 인접 세대 대비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1970년대 출생 고등교육 이수자 표본 내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향후 의식의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도구변수 추정 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은 향후 개인의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 이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만족스런 삶, 행복,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도는,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과는 달리, 본인 마음 속의 기대치를 낮추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의 사회경제적 유의미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과 향후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기여도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도 그다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노조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앞서 제3장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원인의 일부가 개인의 의식 변화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하였듯,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에 따른 개인 의식의 부정적 변화가 향후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개인 의식 메커니즘이 실제로 한국에서 작동했다는 근거를 일부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표 4-5>에서 보듯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이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본인의 인적자본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유인에 역시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장기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갖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일반사업인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의 2년 차에 수행된 연구과제이다. 현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과거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된 연구 대상인 1970년대 출생 X세대와 그 인접 세대인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 및 경제적 지위를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출생 세대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지표나 경제적 지위가 인접 세대보다 열악하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시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 고용지표의 경우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1970년대생이 가장 양호하다. 더불어 순자산,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등 항목에서 세대 간 경제적 지위를 2010년 이후 비교하더라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타 세대 대비 더 낮다고 볼 근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20대 혹은 30대 동일 연령대일 때 각 세대의 고용지표를 비교하면,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비교 대상 타 세대 대비 대체로 열악하였다. 20대일 때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 출생 세대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더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상은 30대일 때를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유사하다. 한편 1980년대생과 비교하면 20대일 때는 1970년대생이, 30대일 때는 1980년대생의 고용지표가 대체로 더 우월하였다. 이는 1980년대생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예전보다 늦어진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970년대 출생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졸업 당시 실업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X세대라는 단일 세대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 분석 표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세대 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970년대 출생자의 과거 노동시장 이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관련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 시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X세대 고등교육 이수자에 초점을 맞춰 수행한 분석이 현 시점 청년 일자리 정책의 우선 순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내성성 편의를 제거한 도구변수 추정 결과,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향후 취업자 여부, 임금 수준, 정규직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동시장 진입기의 불리한 여건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지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OLS 추정 결과와 도구변수 추정 결과 간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X세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졸업 연도 선택의 내성성에 따른 편이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한 경우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1970년대 출생 세대와 1960년대생 및 1980년대생 간 의식의 추이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대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이 인접 세대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개인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 및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 등에서 1970년대생이 인접 세대에 비해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1970년대 출생 고등교육 이수자 표본에서 노동시장 진입기의 구직 난이도가 향후 의식의 궤적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 졸업 연도의 실업률은 향후 개인의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만족스런 삶, 행복,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도는,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삶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과는 달리 기대 수준을 낮추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이 개인 노력에 따른 지위 상승 가능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대학 졸업 당시 실업률은 향후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한 기여도 인식에 통계적으로도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노조 가입에 따른 수혜를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향후 개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 원인 중 일부가 개인의 의식 변화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즉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더 나은 일자리 탐색 및 인적자본 축적 노력 유인에 역시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

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장기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갖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이 과거 X세대의 경험을 분석하여 현재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본 절 말미에는 X세대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시사점을 일부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재의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 순서는 정책의 중요도가 아닌, 정책이 집행되는 연령 순서로 배열하였다.

(1) 초등 및 중등, 더 나아가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규교육 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있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인의 의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불리한 외부 환경에 직면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존감(self-esteem)이 흔들리고 상황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유인이 감소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은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외부 환경에 우리 청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발생 혹은 해외 주요 국가 간 전쟁 발발 등 외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거시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딱히 국내 기성세대의 노력만으로 위기 발생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미래세대가 그 어떤 어려움

을 겪더라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최대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태도(attitude)를 갖출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정규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발생 혹은 해외 주요 국가 간 전쟁 발발 등 외부 여건의 변화로 인해 거시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딱히 국내 기성세대의 노력만으로 위기 발생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내 정책 수단의 적절한 집행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우리 스스로 예방하는 게 불가능한 위기는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과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소위 “IMF 위기”로 칭하면서 마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제위기인 것처럼 치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원인이 1960년대 정부주도 고도성장기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된 우리 스스로의 구조적 병폐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미래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위기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정말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든 관계없이, 이로 인해 경기 진폭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위기의 경우 총공급(aggregate supply) 측 교란 요인 발생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바 있다. 이 경우 총수요(aggregate demand) 측의 문제로 인해 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함께 둔화할 때보다 거시경제정책상의 대응이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물가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통화정책 집행이 불가피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꼭 필요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청년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출을 급격히 줄일 때, 향후 청년세대가 나이가 들어 중장년 세대에 도달할 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래 세수 확대 및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3) 청년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정부에서 적극 시행하였던 기업 대상 청년 채용 보조금 지급 중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재학생들에 대해 조기에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업 현장에서의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하며 직업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정책의 기초를 변경한 바 있다.²⁰⁾

이처럼 졸업 후 구직 실패 등 문제가 발생한 사후가 아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및 숙련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상시 혹은 위기 상황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당연히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영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조기 투자를 적극 시행하는 것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소한 경제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지난 정부에서 적극 활용하였던 청년고용 시 장려금 지급 정책을,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을 기업이 아닌 청년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용주의적(pragmatic)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남재량·김세움·이철인(2023)이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당시 청년고용정책 사례를 요약한 바에 따르면,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20)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부처 예산안을 바탕으로 9월 청년고용 현장간담회에서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서, (1) 재학생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진로탐색 및 훈련·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크게 확대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하며, (2) 니트(NET) 탈출 및 예방과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3) 빈 일자리 등 구조적 mismatch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지원금 신설 및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확대하며, (4) 민간부문의 협업에 기반한 일경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용노동부, 2023).

를 대표하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조차, 팬데믹 시기에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예산 규모 확대로 인해 재정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의 문제점은 과거 사례를 반추하여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갖는 중요성 및 증장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기여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기존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장려금 사업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각 영역별 정책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나, 핵심 연구대상으로서 X세대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출생 X세대는 그들보다 이전 세대가 1960년대 정부주도 고도성장기 이후 오랜 기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구조적 병폐의 축적, 그리고 위기 상황을 상정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미비로 인한 피해를 노동시장 진입기에 고스란히 떠안은 이들을 다수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 노동시장 성과 및 개인 의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등에는 노동시장 진입기의 어려움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긴 한다. 다만 노동시장 진입기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낮춰 적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시점에서 X세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연령대로서 중장년층으로 분류된다. 그중 졸업 당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오랜 기간 그로 인한 후과를 겪어 온 이들의 경우, 청년기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중장년 연령에 도달해서 뒤늦게 받는 게 불가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적절한 집행을 통해, 이들이 고령자 연령대에 도달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윗세대나 아랫세대와 비교하여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늘 믿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X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청년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기에 겪는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짐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3), 『취약청년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취업 늘리기』, 2023. 9. 5. 보도자료.
- 김세움(2021), 『청년 일자리 변화 예측 연구 : 기업 인사관리 및 청년층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세움 · 길은선 · 민경률 · 오호영 · 주휘정(2022), 『지역균형인재 육성정책의 고용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 남재량(2021), 「COVID-19 충격이 청년니트(NE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21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 김세움 · 이철인(2023), 『코로나 시기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성과와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오중현 · 최충(2017),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용호 · 김민수(2022), 『청년층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4), pp.241~264.
- 이철승(2019), 「세대, 계급, 위계 :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pp.1~48.
- 정도범(2021),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에서 첫 직장 선택의 중요성」, 『노동정책연구』 21(1), pp.165~195.
- 최슬기 · 이윤석 · 김석호(2019), 「세대별로 투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달라지는가?」, 『한국사회』 20(2), pp.103~130.
- 최요한(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pp.31~5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_____,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2년) 원자료.

- _____, 국가통계포털(KOSIS).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의 표준연력(<http://manse.kisti.re.kr/>)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 Wave 설문지, 코드북 및 사용자 지침서.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 한요셉(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Bae, Y. and T. Kim(2023), “The Labor Market Impacts of Graduating from University during a Recession: Evidence and Mechanisms,” *Empirical Economics* 64, pp.931~958.
- Choi E. J., J. Choi and H. Son(2020),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Labour Economics* 67, 101926.
- Giuliano, Paola and Antonio Spilimbergo(2014), “Growing up in a Recess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 pp.787~817.
- Kahn, Lisa B.(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17, pp.303~316.
- Maclean, J. C. and Terrence D. Hill(2015), “Leaving School in an Economic Downturn and Self-esteem across Early and Middle Adulthood,” *Labour Economics* 37, pp.1~12.
- Shepperd, J. A., J. A. Ouellette and J. K. Fernandez(1996), “Abandoning Unrealistic Optimism: Performance Estimates and the Temporal Proximity of Self-relevant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pp.844~855.
- Van Dijk, Wilco W., Marcel Zeelenberg and Joop van der Pligt(2003), “Blessed are Those who Expect Nothing: Lowering Expectations as a Way of Avoiding Disappoint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4), pp.505~516.

Von Wachter, Till(2020), “The Persistent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for Young Adults and Their Sour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4), pp.168~194.

◆ 執筆者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X세대의 노동시장 이행과 의식 형성

- | | |
|------------|--|
| ▪ 발행연월일 | 2023년 12월 26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3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732-5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732-5